

第24回 忠清北道教育委員會(臨時會)

會 議 錄

('93. 6. 17. ~ 6. 19)

忠清北道教育委員會

목 차

1. 제24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3
2. 제24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11
3. 제24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87
4. 부 록	
가) 의사일정(안).....	117
나)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19
다) '9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정수관리대상물품처분안.....	125
라) '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127

본 회의 회의록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의사국

1993년 6월 17일 (목요일) 14시 30분

의사일정 (제2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1. 제24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9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정수관리대상물품처분안
5. '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부의된 안건

1. 경과보고
2. 제24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9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정수관리대상물품처분안
6. '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7. 회의록 서명위원 선출의 건

(사회 : 의사과장 이영규)

(14시 30분 개식)

● 의사과장 이영규

지금부터 제24회 충청북도 교육위

원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전면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주악.....국기에 대한 맹세)

바로

이하의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개회식을 마치고 이어서 본회의가 시작되겠습니다.

(14시 32분 개의)

● 의장 김영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 경과보고

● 의사과장 이영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소집 및 집회공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6월9일 집행청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충청북도교육위원회 공고 제93-7호로 6월9일 집회공고를 하였습니

다.
두번째, 전번 회기인 제23회 교육위원회 의결 안건 처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농업제고등학교농업기계공동실습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94학년도 국·중학교설립계획안과 수정의결된 '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5월31일 집행기관에 이송하였고, 이중 2건의 조례안은 6월2일 도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세번째로는 제24회, 금회 회기 처리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청에서 제출된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9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정수관리대상물품처분안, '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등 3건의 의안과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질문이 있으시겠습니다.

이 질문을 위해서 6월14일 이상일

위원님 의 세분 위원님으로부터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발의되어서 금회 회기의 안건으로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제24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4시 36분)

● 의장 김영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4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미 통보된 의사일정안과 같이 제24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는 6월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으로 하여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3건의 의안처리와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본 의사일정에 대하여 의견있으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제24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는 6월17일부터 6월19일까지 3일간으로 결

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4시 37분)

● 의장 김영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이상일위원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일위원

이상일교육위원입니다.

본인 외 3인 위원이 발의한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4조 및 충청북도교육위원회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출석일자는 93년 6월18일 및 19일 각 10시 30분으로 제24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제2차 및 제3차 본회의 때입니다.

출석대상자는 부교육감과 각 국장 및 기획감사담당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출석요구 이유는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위한 것입니다.

이상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한 바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영세

이상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제안한 바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9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정수관리대상물품처분안

6. '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14시40분)

● 의장 김영세

다음은 동일부서소관의안건인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9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정수관리대상물품처분안 의사일정 제5항 '93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변경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관계관이신 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각각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리국장 신재철

관리국장 신재철입니다.

먼저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교육재정 확충을 위하여는 각종 제증명 수수료의 현실화를 추진하여야 하나 국민의 경제적 부담 및 동일 지역내에서 기관간의 형평을 고려하여 충청북도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와 동일 금액으로 조정코자 의안을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세부 내역은 붙임과 같으며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각종 제증명 발급수수료를 현 200원에서 300원으로 상향조정하고 공공단체가 신청하는 제증명

발급에는 수수료 감면사실 고무인을
날인하여 발급받는 기관의 행정업무
의 편의를 제공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
별회계징수관리대상물품처분안에 대
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본청 차량운영의 내
실화를 기하고, 정부의 근검절약실천
에 솔선함으로써 국민과 고통을 분담
하기 위하여 처분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로는 본청 보유차량중 내
용년수가 지난 노후차량을 처분함으
로써 차량관리에 따른 예산을 절감하
고자 합니다.

제안 근거로는 지방재정법 제95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13조 제2항, 지
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13조 제1항
입니다.

이상으로 '93년도 충청북도교육비
특별회계징수관리대상물품처분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제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
겠습니다.

제안 근거는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
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 제34조의 규
정에 의거 적기에 건물을 증·개축하
고 도로편입 학교부지에 대한 보상을
받아 교육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
고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붙임과 같으며 주요골
자를 말씀드리면, 제천고 육성회장의
기부 채납에 따라 구내 매점을 개축
하고 이원국민학교 교실과 군남국민
학교, 삼성중학교 계단실을 증·개축
하고자 합니다.

또한 옥천-고당간 도로 확장공사에
따라 군남국민학교 부지 일부와 교문
이 편입되어 이에 따른 편입학교 용
지 매각과 교문을 개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
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
다.

● 의장 김영세

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들으신 안전증에서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수료조정에 관한 사항으로 그 내용이 간단하므로 동조례안 심의를 위한 조례심사 소위원회는 별도로 구성하지 않고 본회의에서 직접 다루고자 하는데, 의견있으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에, 이견 없습니까?

("에."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서 직접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동조례안등 관리국장으로부터 방금 제안설명 들으신 3건의 의안에 대한 질의·토론 및 의결은 제2차 본회의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7. 회의록 서명위원 선출의 건

(14시 45분)

그러면 다음은 회의록 서명위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김사수, 김응복 두분위원을 선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의가 없으므로 제24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위원으로 김사수, 김응복 두분위원이 선출되었습니다.

두분위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하고자 합니다.

내일 질의·토론을 대비하기 위해서 오늘 모든 제출된 의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7분 산회)

○ 출석위원수 : 11명

의장 김영세, 부의장 김광수, 위원 이상일, 이재희, 홍신희, 김응복, 이근수, 김사수, 박병해, 권혁풍, 장충호.

○ 출석공무원 : 18명

교육감 정인영, 부교육감 박동기, 초등교육국장 홍영창,

중등교육국장 나세웅, 관리국장 신재철, 공보담당관 정
정금옥, 기획감사담당관 신태희, 행정관리담당관 이기수
초등장학과장 채신병, 초등교직과장 김재성, 중등장학
과장 송대헌, 중등교직과장 임순재, 과학기술과장 정기
우, 사회교육체육과장 정철진, 총무과장 고일영, 행정과
장 이상찬, 재무과장 정현동, 시설과장 박성근.

- 의사일정안 : 별첨 1.
-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별첨 2.
- '9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정수관리대상물품처분안 : 별첨 3.
- '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 별첨 4.

본 회의 회의록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의사국

1993년 6월 18일 (금요일) 10시 33분

의사일정 (제2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1.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재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9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정수관리대상물품처분안
3. '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4.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

부의된 안건

1. 경과보고
2.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재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9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정수관리대상물품처분안
4. '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5.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

(10시 33분 개의)

● 의장 김영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충청북도
교육위원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
겠습니다.

(의사과장 발언대로 나옴)

1. 경과보고

● 의사과장 이영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신
바에 따라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서를
6월 17일 집행기관에 이송하였습니다

오늘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
을 들으신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
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을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답
변과 아울러 전회기에 질의하신 내용
에 대하여 답변을 들으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2.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증명
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35분)

● 의장 김영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
육비특별회계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예, 질의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질의없기 때문에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분 있으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십니까?

반대토론 없으면 토론을 종결합니
다.

이의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건에 대해서는 반대의견
이 없고 이의가 없으신 걸로 압니다.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
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
을 선포합니다.

3. '9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
계정수관리대상물품처분안

(10시 3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3년도 충
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정수관리대상물
품처분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 있으면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해서 반대토론이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이 없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반대토론이 없고 역시 이의가 없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 없으시죠?

예, 이의가 없으므로 '9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정수관리대상물품처분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10시 3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 없으십니까?

(권혁풍위원 거수로 발언신청)

예, 그럼 권혁풍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권혁풍위원

제가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를 보면 음성교육청 그 삼성중학교의 계단실 개축이 81.9㎡ 처분은 72㎡가 3평이 증가가 됐는데, 그 3평이 물론 증가되는 건 좋습니다만 그 증가가 돼야 될 이유라든가, 그리고 계단실도 교실과 똑같은 액수가 들어가는 건가 그것 하나 질문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8페이지로 넘어가면 배치도가 나와 있는데, 군남국민학교 거기는 그 건축비가 평당 167만

5,000 원이 됩니다, 평당으로 따져보니까.

그런데 삼성중학교는 평당 134만원이 됩니다.

그 차액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나는가, 다같은 계단실인데 그런 한30만원정도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가, 그 다음에 9페이지 군남국민학교운동장에 그 뭔가 m²당 운동장 즉 279번지 이것은 5,798원인데, 그 밑에 있는 것은 283- 13 지번 그것은 m²당 1,693원입니다.

바로 붙어있는 땅인데 어째 이렇게 차이가 나는가 이걸 묻습니다.

그 다음에.....

우선 그렇게만 질문드립니다.

● 의장 김영세

예,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석 답변준비로 잠시지체)

●(좌석에서) 관리국장 신재철

시간을 좀 주셔야겠는데요.

● 의장 김영세

예, 시간이 필요하세요?

● 관리국장 신재철

예.

● 의장 김영세

예, 그러면 또 판분 본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있으면 또 말씀하세요.

(김광수 부의장 거수로 발언신청)

예, 김광수교육위원님 말씀하세요.

(마이크 상태 불량으로 청취불능)

좀 크게 말씀하세요.

● 김광수 부의장

(질문진행하나 마이크상태 불량으로 청취불능)

(좌석에서 "마이크가 안 나와요" 하는 사람있음)

(마이크 점검)

● 의장 김영세

이쪽이 다 안나와요?

● 부의장 김광수

(마이크상태 정상회복)

8페이지 군남국민학교 건물 및 공작물 취득 배치도, 그걸 보시려는 이번에 그 도로로 나가는 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꼬트머리에 그 사택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택.

이사택은 이번에 처분계획에 안들어 있는데 이 국도변에 바로 사택

이 접해 있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겠는가하는 애깁니다.

이것도 국도가 나가면서 이 사택이 이전할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사수위원 거수로 발언신청)

● 의장 김영세

예, 또 감사수위원 질문있습니까?

● 감사수 위원

잠깐하나.....

● 의장 김영세

예.

● 감사수 위원

제천고등학교 구내매점 개축으로 돼 있는데, 또 그 기부채납한 사람은 육성회 회장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이 개축, 이게 현재도 있는 걸 아마 고친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이 소유가 누구의 소유가 되어있는건지, 육성회에서 돈을 들여서 이번에 2천만원을 들여서 개축을 해가지고 기부채납하는 것 같이 이렇게 생각이 들어 가는데, 그 관계를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벌써 이게 육성회로 기부채납이 됐어야 되는 건물일텐데, 구내매점이 예전부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계를 좀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의장 김영세

예, 또 다른분 질문 있으십니까?

예, 그러면 답변준비 어떻게습니까?

시간이 필요하시면 필요한 대로 연기해.....

●(좌석에서) 관리국장 신재철

예, 시간을 좀 주셔야겠습니다.

● 의장 김영세

그렇습니까?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0시 59분 회의계속)

● 의장 김영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 질문에 대해서 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니다.

(관리국장 발언대로 나옴)

● 관리국장 신재철

관리국장 신재철입니다.

먼저 권혁풍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삼성중학교 계단실이 철거분보다
신축분이 3평이 증가한 이유는 그 계
단실의 폭이 약간 먼저 있던 기존의
계단보다 넓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3평정도 늘어난 겁니
다.

그 다음에 두번째에 질문하신 계단
실 신축비와 교실신축비의 차이를 말
씀하셨는데 현재 계단실과 교실 신축
비는 같습니다.

세번째로 군남국민학교와 삼성
중학교의 계단실 단가 차이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삼성중학교는 교실
벽면과 잇대어서 짓기 때문에 그 단
가가 낮고 군남국민학교는 계단실을
뒤로 빼어서 새로 짓기 때문에 벽면
이 하나 더 생김과 동시에 타일을 박
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단가가 높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도로 편입토지의 가격차이
를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지금 그 가
격이 나와 있는 것은 대장상의 가격
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그 토지를 구입할
때에 가격이 차이가 난 그 대장상의
가격이고, 이번에 군청으로부터 보상
받은 가격은 평당 14만6,000원으로
똑같이 받았습니다.

예, 답변이.....

● 권혁풍위원

예.

● 의장 김영세

예, 다음 답변 먼저 또 하세요.

● 관리국장 신재철

다음에는 김광수 부의장님께서 말
씀하신 "군남국민학교의 사택이 도로
와 인접되어서 있는데 이전할 계획이
없느냐"고 말씀이 계셨는데, 현재 군
남국민학교 사택은 건축년한이 18년
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2년이 경과되면 철거 내용
연수에 도달하기 때문에 그 2년이 지
나간 다음에 저희들이 이전을 할 계

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김사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천고등학교의 식당문제는 당초에 식당은 기부채납을 받아가지고 있었던 식당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노후된 건물이기 때문에 철거를 하고 그 자리에 이번에 신기호씨께서 신축을 해서 도에 기부채납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현재는 도교육청재산으로 돼있습니다.

● 김사수위원

현재 그럼 도유재산을 개축을 누가 한거요?

● 관리국장 신재철

예?

● 김사수위원

신기호씨 그 육성회장이 결국 돈을 낸거 아녀, 돈만 낸 거지 개축은 교
육청에서 한 거지.

● 관리국장 신재철

그렇죠. 예.

● 김사수위원

그러면 이것을 금액으로 얼마 표시
를, 기부를 한 것 같이 하는게 낫지,

이렇게 해 놓으니까 도유재산을 육성
회장이 개축을 한 것 같이 이런 인상이
들어가기 때문에.....

● 관리국장 신재철

아니, 그러니까요 먼저 있던 도유
재산이 노후가 돼서 철거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내용적으로 아마
말씀이 계셨던 모양입니다.

이게 다 노후가 돼서 못쓰게 됐는데
이거 이제 질 문제가 생기니까 "내
가 쳐 주겠다. 쳐서 기부채납을 하
겠다." 하고.....

● 김사수위원

그럼 순서가 철거 먼저 하고 나중
에 이제 이 육성회장이 지어준 거는
그대로 건물로 받아들이고 했으면 서
류가 날텐데, 알아요 내용은 알겠는데

● 관리국장 신재철

건물로 받은 겁니다.

● 김사수위원

건물로 받았다면 도유재산 명의로
있는 것을 육성회장이 어떻게 개축을
하느냐 이거여.

돈으로 받아가지고서 개축을 했다

면 그게 얘기가 더 난데.

● 관리국장 신재철

아, 먼저번에 그 철거 승인은 말았
답니다.

● 김사수위원

허락을 말았어요?

● 관리국장 신재철

예, 요전번에 말았고, 그리고 신축
협의회는 저희들이 그.....

● 김사수위원

그러면 이게 개축이라고 하면 안되
지, 먼저 철거를 했으면은 없어진건
데

● 관리국장 신재철

동시에 이루어지는 걸로 봐서 개축
으로 인해 저희들은 그렇게.....

● 김사수위원

아 내용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내용이 애매해서 질
문한 거지.

● 관리국장 신재철

예.

● 의장 김영세

그러면 지금 어떻게 답변 됐습니까

● 김사수위원

예.

● 의장 김영세

보충질의 있습니까?

(김광수위원 거수로 발언신청)

● 의장 김영세

예, 말씀하시죠.

● 부의장 김광수

예, 내내 그 군남국민학교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8쪽을 보며는 지금 도
로가 4차선으로 나기 때문에 이런 사
항이 생깁니다.

정문을 한가운데다가 이렇게 파란
표시를 해서 그려놨는데, 이 정문이
여기 있을 것 같으면 상당히 그 위험
성이 따라요.

여기 저 9페이지를 볼 것 같으면
지금 파랗게 칠해논 노란건가 칠해논
부분이 이번에 이제 보상을 받을 부
분입니다.

그위에 두선으로 나가 있는 것이
지금 현재 국도인데 여기는 정문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서 애들이 나오
더라도 그 교문앞에 여유부지가 있어
서 거기 콘크리트를 해놓고 이렇게
해가지고서 애들이 충분히 차가 오고

가고 하는 것을 충분히 바라볼 수가 있어요.

있는데, 지금 현재 8페이지에 볼 것 같으면 이 국도에다가 한가운데, 학교운동장 한가운데다가 교문을 세우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해 놓으면은 상당히 위험성이 따른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이게 시내가 아니고 시외가 돼가지고 차량들 질주 속도도 상당히 그 고속화되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 가운데다 하는 것이 좀 부적합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위치변경을 할 수가 있을 것인지 그것을 대답해주시기 바랍니다.

● 관리국장 신재철

에 그 문제는 지금 교문의 위치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위험성이 있다거나 이런 그 어려운 점이 있을 때는 교문의 위치는 어느 지번에다가 설치한다고 나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1식을 교문1식을 저희들이 세운다는 것만 저희들이 올렸기 때문에 관계되는 학교와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위험성이 있다고 하면

다른쪽으로 옮기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 부의장 김광수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영세

예, 보충질의 없으시죠?

예, 내가 몇가지 말씀하했는데, 지금 김광수부의장님은 그 지역 출신의 교육위원이기 때문에 그 실정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일종의 권장사항으로 받아들여서 그것을 반영시키도록 이렇게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저 권혁풍위원이 질의한데서 착안이 된건데, 지금 대장가격이라는 것이 이게 기업회계에서는 매년 감가상각을 해가지고 실제로 실세에 맞는 금액이 산출이 되는데, 이 공용대장이라는 것은 감가상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구입당시의 대장가격이 그냥 처분안에 그냥 나와요.

그래서 매우 불합리합니다.

이번에 그 찻차 처분하는데 보니까 86년에 취득가격인 760만원이 그냥

왔는데, 지금 7년이 된 찻차가 760만원 나갈리가 없어요.

그런다면은 더군다나 또 이 도로로 수용이 돼서 처분안이 올라온다 할 것 같으면 실제로 여기다 대장가격으로 반영을 시키지 말고 토지 보상가가 이미 나왔단 말씀이에요.

그러면 관계직원들이 토지보상가를 여기다가 올려 주어야 우리 교육위원들이 파악이 쉽고, 또 누가 보더라도 그 문서가 합리적이에요, 그게.

그래서 앞으로 처분안에 대해서는 실제 당시의 가격으로 재사정을 해서 올린다는지, 또는 대장가격에 있는 것을 감가상각을 계산해서 올리는 것이 합리적이 아닐까, 이렇게 난권을 합니다.

그것 한번 참고로 해보시죠.

● 관리국장 신재철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불합리한 점은 처음부터 저희들도 발견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든 공부상에 그냥 이게 존속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문

제가 지금 지적하신 대로 나왔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한번 연구를 해서 앞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의장 김영세

그러니까 공부는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부상에는 뭐 감가상각을 할 수 없어서 그냥 있다 손쳐서 그냥 낸 건데 처분안을 낼 적에 만은 이미 가격이 사정되어 나왔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 가격으로 처분안을 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야 이해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 관리국장 신재철

예, 알겠습니다.

● 의장 김영세

그렇게 좀 앞으로 정리를 해서 내줬으면 합니다.

관계직원한테 한번 확인을 시켜보세요.

● 관리국장 신재철

예, 알겠습니다.

● 의장 김영세

예, 그러면 더이상 질의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건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반대토론이 없어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해서 반대의견이 없기 때문에 이의가 없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

(11시 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질문·답변 진행은 일괄질문후에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내일 도의회 출석관계로 해서 중등교육국 및 관리국과 행정관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는 금일중에 보충질문 답변까지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의 부서는 오늘부터 내일 제3차 회의에 걸쳐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기관에서는 21세기를 향한 충북교육발전계획에 관해서 이상일위원과 권혁풍위원이 전회기에 질의하였던 내용에 대하여도 금번, 같이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 질문서를 접수한 순서에 의해서 질문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상일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이상일위원

이상일 교육위원입니다.

제가 지난 5월27일날 열린 제23회 임시회의 때 한가지 질문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이 선진각국이 그 독특한 국민정신을 가지고 있는데, 과연 우

리 대한민국에서는 어떤 국민정신을 키울거나, 그래서 제가 생각으로 우리에게도 좋은 선비정신, 양반정신 비슷한게 있는데, 그 끈고 올바른 선비정신, 그리고 쉽게 좌절하지 않는 은근과 끈기정신을 좀 강조했으면 어떻겠느냐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어저께 그 뉴스에도 보니까 미국 그 로스앤젤레스 오렌지카운티에 써니힐하이स्कूल에서 성적이 나쁜 고등학교 학생들이 명문대학엘 우수하게 많이 갔더라 그거여.

그 이상하게 여긴 당국에서 필적조사를 해봤더니 거기 가서도 대리시험을 봤더라, 그러니까 이 국내에서 망신시키는 학부모나 학생들이 그저 들어가보자 하는 생각으로 부모가 어떤 방법을 쓰든지 입학만 시켜주면 학생들이 그런거에 거부감없이 정의가 뭔지 올바른게 뭔지 분별력을 잃어버리는데, 그런면에서도 우리 옛날 선비들의 끈고 깨끗한 선비정신을 강조해서 키워주실 계획이 없는지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좀 읽어 봤더니, 일반적으로 전체적 부분별 교육발전 계획은 아주 잘 입안이 돼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학교교육의 특성상 학교급별 유치원이라든지, 초등, 중등으로 현안 문제를 진단하고 미래지향적 방향을 제시하는데 좀 미흡한 것 같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국민학교, 그 초등 그래가지고 교육과정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다하는 얘기, 두번째, 시설과 설비의 선진화방안 지금 냉난방 문제라든지 화장실개수라든지 교육환경을 개선하는데 필요한 사항이 참 많습니다.

이런건 어떻게 할 거냐 하는거, 그다음에 세번째로 그 과대학교의 분리 계획 같은 거, 지금 청주시나 충주시 같은데는 국민학교 한 학교당 2,500명이 넘는 학교가 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2,000명이 넘어가고 3,000명 가까우면은 이걸 분리를 해야 하지 않느냐하는 생각이

드는데, 일본의 자료같은 걸 보니까 1,000명이 넘으면 일본은 우선적으로 분리를 한다고 합니다.

물론 이르기위해서는 많은 교육재정이 필요로 할 줄로 압니다.

이런데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그 다음에 네번째 수업의 질적인 향상문제, 서양의 경우에서도 보면 선진국에서는 한 학급당 25명에서부터 20명 17명까지 학생수가 참 적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질 좋은 수업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아직도 50명을 기준으로 해서 그보다 좀 더 적든지 그런 수준인데, 이렇게 많은 학생을 가지고는 좋은 수업을 할 수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학급당 학생수를 낮추는 방안, 거기에서 교과전담제의 확대방안은 어떻게 할 것이라든지, 하는 문제가 좀 구체적으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세계은행 보고자료가 저번에 나왔는데 보니까, 교원 1인당 학생수가 우리나라가 부끄럽게도 세계116위랍니다.

그 아프리카의 나라보다도 더, 다

른 문제에서는 교역량이 세계 제12위니, 13위니 그리고 선진국을 향한 워플랜(PLAN)이 장미빛으로 나와 있는데 학생수당 교원1인 숫자가 세계116위랍니다.

그래서 이런것은 어떻게 해소를 할 수가 있는냐하는 문제, 그리고 다섯 번째로 아직도 19세기식 칠판, 그저 백묵, 선생님의 판서와 설명, 이런 주입식 교육이 언제쯤 해소가 되겠느냐, 역시 요새 그 오픈시스템(open system)이라든지, 워 오픈에듀케이션(open education)이라는 그런게 상당히 많이 시도도 되고 있고,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런 열린교실, 열린 교육같은 것은 언제쯤 정착이 되겠는가, 하는 것이 좀 구체적으로 학교급별로 열거가 됐으면 좋지않았겠느냐하는 제 의견인데 이에 대한 집행청의 견해는 어떠신지 그 두가지 질문만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영세

이재회위원 질문서 안 내셨죠?

(이재회위원 "예."하고 답변)

예, 김응복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김응복위원

국가나 단체나 모든 기관쳐놓고 적어도 앞날을 바라보는 발전계획, 비전을 제시한다는 건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충청북도의 21세기를 향한 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시는데 노고하신 당 교육청에 대해서 치하 말씀을 드립니다.

어디까지나 이는 21세기를 향한 교육발전계획이기 때문에 하위적인 실천 방법에 가서 여러가지로 그것이 적절하게 옳은 방법으로 시행은 되리라 믿습시다마는 여기에서 제시한 것과 마찬가지로 현황을 분석하고 장래를 전망하고 거기에 따르는 적절한 방침같은 걸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전망에 있어서 앞으로의 우리 교육자치제가 지방까지, 또 현재 불완전한 지방교육자치제도가 보완이 되고 바람직스러운 교육자치제가 된다는 전제하에서 한번 생각할 적에

학부형들의 교육정도도 높아지고 아이들 수도 하나 아니면 둘, 이러한 말하자면 부모로서 누구나 과보호해야 할 그런 심정적인 경향, 이런것을 감안했을 적에 아무리 좋은 계획이라 하더라도 결실하는 곳은 어디겠느냐, 결국 교육현장입니다.

교육현장인 가운데에서도 교육을 직접 담당하는 일선학교의 교사들의 문제입니다, 이게 .

교사들의 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걸로 됐을적에 앞으로 학부형들의 교육수준도 높고 문민정부도 들어서고, 또 타국을 이번 미국을 갔을 때에 주민들의 교육권, 세금낸 권리가 그렇게 심각하게 실감있게 관여하고 간섭, 교육에 간섭하는 일을 봐서 아주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학부형들이 PTA니 뭐니 학교를 여러가지 형식적으로는 도와줬지만은 사실상 교사를 앞으로는 추천하고 교육하는 방법 여러가지 면에서의 간섭하는 권리까지도 보유하려하고, 당연히 나라해도 좋은 담임을 선택하고자, 또 자기자식을 남

보다 좀 잘 가르치고자 하는 부모쳐 놓고 의욕없는 사람 없을 줄 압니다.

이런 면에서 여기 계획을 볼 것 같으면 획기적인 교원의 질적향상을 기한다 생각했습니다.

물론 교원의 어떤 부정이나 기타 위법적인 행위는 법으로 조치한다 하더라도 사실상 요건의 부끄러운 얘기지만 과연 이러한 교사들이 교단에 설 수 있을까, 실력, 학력적인 면이나 품위 여러가지 면에서 문제되는 교사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평생 하학년 1학년 정도만, 1,2학년정도만 담임할 정도의 그런 교사도 있다는 얘기를 우리 가족끼리로나마 부끄럽게 얘기가 난 적이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앞으로 교육권 부모로서의 교육권을 신장시키고 올바른 교육의 감시자로서의 부형의 교육대책, 이런 것을 좀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교원의 질 문제인데 이것은 참 지 난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떻게해서, 앞으로의 현직 교육같은 것을 실정에 맞게 여기 계획서에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획기적

인 방법으로 교원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현직교육을 하겠다는 얘긴데, 그런 방법적인 문제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대개 저도 그랬습니다마는 교육자가, 일선 교원들이 연한이 차서 빨리 관리직으로 어떻게 진출해서 교감되고, 교장돼서 정년이라도 마쳐야 그게 명예롭게 생각하고, 또 남이 보더라도 체면이 서는 양, 이런 풍토가 조성돼서, 일선학교 선생님들이 점수따기에, 어떻게든 점수를 따서 관리직으로 나가려하는 그러한 경향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이런 수반되는 여러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런 예를 보더라도 양심적인 어떠한 교사들중에는 무관심할 정도로 관리직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냥 교직에서 묵묵히 참말로 아이들 가르치는 일에 열중하다 정년하겠다하는 이러한 교사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관리직으로 나가는 그러한 교사들과 자기 소신에 의해서 자기 교육철학에 의해서 평생 평교사

로 진지하게 교육자로서 말하자면 마치겠다하는 사람들의 의표를 생각하고 그러한 대응문제 같은 것도 한번 고려하셨으면하는 생각인데 당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자율학습, 보충학습을 전국적인 경향에서 없앤다는 이러한 경향으로 나가는데, 다행히 우리 충청북도 교육감님께서는 "충청북도에서는 실시하겠다." 아주 소신있는 이런 결단을 내려주신데 대해서 꼭 존경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청주시만하면 모르더라도, 군청소재지 같은데는 사실상 보충수업만 제 목적대로 정당하게 비난받지 않게 된다면 꼭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런 보충수업없이 군청소재지 이하 정도에서는 여러가지 애로가 있다고 생각했을 때에 본청 교육감님께서 그런 용단을 내려주신데 대해서 저로서는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한가지 문제는 앞으로 전

망했을 때에 산업사회, 정보사회 뭐 이런 사회가 되고 다기능 사회가 된다고 전망하면서도, 사실상 세계적으로 불적에 사상적인 대립이 해소되면서 민족간 분쟁이라든가 또하나의 가장 우려되는 것이 그런것이 해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남북관계 같이 이러한 사상적인 면에서 대립하는 곳은 없습니다.

또 한가지 앞으로의 국민적 생활관전인 무역이라는 것이, 상권이라는 것이 굉장히 지금 지역적으로 그룹(group)화하고 단결하고, 이렇게 돼서 무역전쟁이라는 것은 사실상 역사적으로 봤을 적에 전쟁의 근본적인 원인은 사실상 상권전쟁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근본이 되는 것이.

우리 남북관계의 이렇게 위치돼 있고 그러한 면도 고려되고 앞으로의 세계적으로 나아가서 무역전쟁에 뛰어들어야하고 여러가지 면을 고려했을 적에, 그래도 과거에는 우리들이 지금 50-60대가 이상되는 사람들이 교편을 잡았을 때에는 애국애족이라

고 할까 선공후사의 정신을 길러 주는데에 그 나름대로의 신념을 담았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같이 이기적인 이런 사회라든가 일선 학교의 말하자면 여성화, 교사들의 여성화 경향이라든가 이런것을 봤을 적에, 과연 우리 그 아이들을 어떻게 인내심과 모험심과 강인성을 길러줄 것인가 이런것이 썩 문제입니다.

실례로 봐서 과연 국민학교선생님이나 대학교 선생님이나 체육교사 거시기 할 때 뽀뽀3단이상 제대로 한번 자신있게 훌훌 넘고, 철봉 적어도 한 10여번씩 자신있게 하는 그러한 교사가 얼마나 있겠느냐 이런것까지도 심지어 이런것 까지도 염려가 돼요.

지역적으로, 의도적으로 보려해서가 아니라 체육시간이라는 것 중·고등학교나 혹은 뭐 국민학교든 이렇게 지나다 보면 의례히 불하나 내놓고 한편에는 여자애들 따로, 한편에는 남자애들 따로, 그럼 선생님은 과연 체육교육 특히 제가 아까 예를 든 뭐 남녀간에 앞으로 21세기는 모험이요,

인내심이요, 감투정신같은 것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고 또한 자기인생을 영위하기 위해서라도 그러한 배짱이 좀 있어야 할 사람들이 앞으로 진출을 하고 필요한데, 여기에 대한 아까 남북관계, 기타 무역국제적인 경쟁관계로 인한 분쟁이 없지않다고 단언할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됐을 적에 아무리 신무기 아무리 좋은 병기가 있다손하더라도 그걸 다루는 사람은 역시 정신입니다

이런 애국적인 정신 그러한 방위라는 자위적인 이러한 자세, 그러한 정신을 길러줄 이러한 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 신문지상에나 우리 충청북도 교육청이 신설해 놓은 야외 생활지도장, 수련장같은 것이 전부 오염되고 뭐 해서 매일 신문같이 그러한 관계개선책도 이런 일환책이라고 보는데 그러한 개선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영세

예, 다음을 진행하기 전에 위원여

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진지하게 이렇게 질문해 주셔서 대단히 다행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위원여러분이 질문한 안건이 46가지입니다.

그래서 시간 관계, 여러가지 또 개중에는 유사한 이런 내용도 있고 해서 집약을 할 것을 우리가 사전에 타협한 것 마냥 질문도 역시 집약을 해서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하고, 또 역시 발언시간 20분은 지켜가면서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박병해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박병해 위원

시간을 절약하는 가운데 제가 질문하는 내용에 계획안에 돼있는 것은 전부 생략을 하고 질문 그 요지만을 바로 바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첫번째의 질문 내용은 도농간의 격차에 대하여 농촌 각급학교의 교육시설과 학습기자재의 낙후된 현실의 차와 학력의 현격한 차를 여하히 보완, 해소하여 형평의 불균형을 여하히 바

로 잡을 것인가, 특히 출신학교의 내신성적만으로 전형 운운하고 있는 이때에 심히 걱정이 됩니다.

그 다음의 질문은 31쪽에 나와 있는 건데, 교사가 전인교육을 통하여 자주적이고 창의적인 도덕인, 건장한 한국인 육성의 비전은 아주 상세히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중요시되는 교원들의 자율성, 탐구능력, 도덕성 이것이 가일층 강조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하여 제시가 미흡한 이유를 설명 바랍니다.

또한 1993년 5월25일 교육감께서 "교육의 현안문제" 이걸 발표를 해주셨는데, 지금제가 질문한 내용과 일맥 통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거기 페이지4에 우리의 다짐 1,2,3항 요것을 보면은 그 실천계획이 있으면서 정말로 그 실천계획이 어디에 있는 것인가, 즉 교육자를 현직 교육자들의 부패상으로 인한 교권추락으로부터 제자리를 올바르게 찾아주는 그런 그 차원에서 학생들을 올바르게 지도

한다고 하는 그런 차원의 철저한 자기 자정이 있어야 하겠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것이 없이는 학생을 건강한 도덕인 육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렵다고 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그다음 세째번에는 교육의 행정제도나 환경시설보다 교육내용이 중시되어야 한다고 하는 차원에서 54쪽에 보면 시민의 공동체의식, 또 59쪽에 보면 예절·절제교육중 충효교육에 대하여 강조됨이 없는 이유를 좀 말씀을 해주시고 78쪽에 보면 "교육과정 편수실설치 가능 여부와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는 것인가", 그 다음에 83쪽에 보면 "교육공학적 수업매체 활용으로 교수·학습방법을 개선한다" "교육방송기교재 확충지원계획이 10억원으로 제상됨은 참으로 다행한 일입니다.

그러나 각 교과별 지도용교구·교재를 확충하여 교육의 정상화를 도모해야 할 이 문제에 대하여는 예산이 줄게 돼있습니다.

그 이유가 알고싶고 또 그 다음에

88-89쪽 여길 보면은 "열린 교육의 시범학교, 특별활동, 영재교육 담당자 연수계획"은 수립되어 있으면서 "지진아 학생의 보충교육계획"이 없는 것은 왜 그런것인가?

또 그 다음에 139쪽에 보면은 "체육활동을 생활화한다. 1인1운동의 클럽(Club)별 체육활동을 활성화한다"에 대하여 전학생의, 전학생들에 대하여 연령별 기초체력 기준표를 작성을 해서 전교생이 매일 개인별 자기 기준을 달성하고자 노력하며 클럽활동도 하는 이러한 풍조를 고취시키는 방과후의 전원체육활동 계획수립은 어떤가 요거 의견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4장 193쪽에 보면은 "적법성 감사보다 예방감사에 역점을 두어 책임과 함께 봉사하는 근무풍토를 정립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감사편람(우수사례, 불량사례)를 발간하여"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또 나항에는 "장학의 방법을 쇄신하여 자율장학을 정착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항목중에 교감행정편람과 장학사편람을 합본 작성하여 연수·보급한다면 교육행정과 장학행정의 전문성과 교육효과가 클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편집하신 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 말씀을 드렸는데, 이 문제는 책하기 보다는 보완한다고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으니, 요 다음 답변하실때는 아주 솔직하게 이렇게 좀 말씀을 해주십사 부락을 드립니다.

● 의장 김영세

다음은 권혁풍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권혁풍 위원

제가 질문 몇가지 드리겠습니다.

먼저번에 제가 6가지 질문을 드렸는데 그중에 한가지만 더, 여섯째번 제일 마지막 것을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립니다.

그 고교 및 대학입시 개혁이 상당히 중요한데, 지금 우리가 교육이 잘 되지 않는 이유가 입시제도에 달린 것이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입시제도에 대한 계획은 서있지 않은 이유가

되거나하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건의 말씀이라고 할까, 그런 뜻에서 다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까지의 그 교육이 순전한 그 지식교육 아납니까?

그 지식이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 생활에 필요한 때 필요한 뜻이 있는 것인데, 즉 지식교육이 지식으로 그쳐선 안되고, 이것이 생활과 관련이 되어서 우리 일상생활에 적용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행복을 갖다 줄 수 있는 그러한 지식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지식이 아니라 지혜다, 즉 "생활의 지혜" 이것을 배워야 되는데 사실은 생활과 동떨어진, 우리 인간의 행복과 동떨어진 "지식을 위한 지식", 이런 교육에 치중해서 그 지식을 테스트해서 대학입시, 고등학교 입시를 하니까 교육이 뒤떨어진 것 아니냐하는 이러한 말씀을 안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보충수업을 없앤다" 이러한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 충북에서는 그게 또 "보충수업을 학교장에다 재량권을 맡긴다" 하게 되

면은 중전과 똑같은 결과가 결국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때는 좀 과감하게 보충수업을 좀 교육행정차원에서 학교장에다 맡기지 마시고, 물론 교육자치이념에는 어쩔지 몰라도 학교에서는 어디까지나 보편성을 이뤄줘야 됩니다.

교육의 기본, 인간교육 사실상 학교에서는 특활이 힘듭니다.

말이 그렇지 선생님들이 전부 그 특기가 아이들 특활에 당할 수 있을 만큼 그러한 준비가 돼있지 않고, 그러한 상태에서 특활을 한다는 것은 거짓말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물론 특활을 많이 해볼려고 노력은 합니다만, 사실상 어렵다는 그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입시에 학교의 성적을 40%, 대학입시도 그렇고, 적용한다, 내신성적을 적용한다" 하는 의미가 바로 그 보편성, 교육의 그 보편성, 누구나 다 배워야 되는 기초적인 인간교육, 여기서 이거는 학교에서 말아서 하고 나머지 그 보편성만

가지고는 교육이 안됩니다.

학생마다 개성이 다르기 때문에 특성이 다르고, 그래서 그 특수성을 살리는 것은 사회교육에다 맡겨두는 게 어떨냐, 학원에다가 학원을 개방해서 학원에다가 이걸 맡기면 보편적인 인간교육은 학교에서 배우고, 또 자기가 희망하는 학원을 찾아가서 자기의 특성을 살리고, 개성을 신장하고 이렇게 해서 그 학원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그 학원 나름대로 어떤 대회에 나가서 상을 탔다든가, 혹은 봉사의 경험을 쌓았다든가, 혹은 헌혈같은 것이요, 헌혈경험이 있다든가, 혹은 고아원에 가서, 혹은 양로원에 가서 어떤 그 봉사한 실적이 있다든가 이런 것을 다 사회교육차원에서 실시를 함으로써 학교와 학원이 서로 상보적인 관계가 되어서 올바른 교육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 충북에서 과연 보충수업을 학교장의 재량에 맡겼어도 이게 미래지향적인 정말로 2천년대를 향한 그러한 교육계획이 과연 바람직한 것이냐,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질문을 하면서 거

기에 대한 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다시 추가 질문을 드린 것을 그 중에 다른 위원님이 하신 말씀을 빼가면서 드리겠습니다.

첫째,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국외연수계획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그 발전 계획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보니까 초등학교 선생님을 500명, 앞으로 10년 동안에, 중등학교를 700여명 그다음에 일반적을 300명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0년동안에 국외연수를 시킨다는 것은 그 근거가 인원수에 근거한 건가, 초등학교선생님, 중등학교선생님, 일반적 혹은 그사람들이 맡은 기능에 근거한 건가, 어디까지나 학생을 직접 담당해서 학생에게 교육적 변화를 시켜주는 그런 기능을 맡은 사람은 역시 교사라고 봅니다.

그럴때 교사에게 치중을 해서 국외연수도 시키고 전문성을 신장시켜주는 기회를 제공을 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균형이 됐는가, 이것이 과연 균형이 맞은 건가, 하는 것을

질문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인간중심의 쾌적한 학교 현대화 계획" 이것은 이상일위원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 학교도서관의 그 책같은 거 이런것을 비치한다는 계획은 잘 돼있는데, 앞으로 도서관은 책만 가지고는 되지않는다고 보겠습니다.

아까 어떤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한 것 처럼 그 교육공학이라는 것이 나와 가지고 컴퓨터가 지금 아주 일상화되고 보편화되는데, 도서관에 과연 컴퓨터의 자료들이 책에 못지 않게 그 컴퓨터 자료가 아주 풍부하게 돼 있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시카고 갔을 때 거기서 그 어떤 학교에 가봤더니 학생들이 도서관에 가서 자기가 필요로 하는 그 컴퓨터를 딱 누르면은 자기가 원하는 자료가 즉 나옵니다.

그럼 그 자료를 가지고 자기들이 조사를 해서 거기에 보고서를 작성하고 해서 서로 발표를 하고 토론을 하

는 그러한 교육의 모습을 봤습니다.

앞으로의 우리 교육도 그런식으로 돼야지, 책만 가지고는 아무리 좋은 책이 많이 있다하더라도 역시 컴퓨터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지 않고는 앞으로의 계획에 뭔가 좀 부족한것 아니냐, 하는 의미에서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네번째는 열린 교육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또 지역사회 교육이니, 지역사회학교니 하는 말도 많이 나옵니다.

이 지역사회 교육이라는 것은 지방 자치교육과 가장 그 일맥이 상통하는 중요한 교육이면서 열린 교육의 그런 성격을 갖고 있는데, 열린교육을 앞으로 하겠다는 얘기는 지역사회 교육을, 글자 그대로 혹은 지역 사회학교를 하겠다는 뜻인가, 그 관련성이라든가 그 차이성은 뭔가 하는 것을 질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섯번째는 이 계획을 세우실 때 계획의 실무단계 혹은 구상단계-계획단계-실무단계-집필단계 이렇게 단계가 몇가지 있는 것으로 봤습

니다.

그러면 이중에서 어떤 단계에서 지방교육정책이 수립됐는가 역시 교육정책이 수립하는 단계엔가 어딘가에 있었을 텐데, 정책이 수립된 단계가 어딘가, 구상단계가, 계획단계가, 실무단계가, 집필단계가 그 단계 과정에서 어떤 전문위원의 어떤 그 심의라든가, 전문위원의 그 조언을 필요치 않았던가, 어떤 그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전문위원이 필요하지 않았을까하는 그런 그 의심을 갖습니다.

그 다음에 6번째 이 정부의 캠퍼스타운이 요새 그 많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우리 "중부권 일대의 캠퍼스타운이 만들어지지 않을 것이냐" 그래서 우리 정인영 교육감님께서도 칼럼이라고 할까 하는 걸 써서 충청일보에 한번 게재한 걸 제가 봤습니다마는 과연 그 캠퍼스타운이 어느 정도 지금 돼있으며, 우리 중부권에 유치될 만한 그런 가능성이 어느정도 있고, 우리 교육발전, 충북교육발전하고는 어

면 연계성을 세울 수가 없는가, 요것은 먼저번 질문에도 제가 드렸던 겁니다.

국가차원의 교육발전계획과 연계여부를 물었던 건데, 그것을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일곱번째는 사학의 재정자립화 계획, 사학은 말만 사실은 사학이지 거의 다 공립화 돼가는 그런 단계가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그 부실사학이 많다고 볼때 그런 "사학을 어떻게 공립화 시킬수 있는 그런 방안은 점차적인 방안은 없는가" 하는 걸 묻습니다.

그 다음에 여덟번째는 중치교사제도라는게 있고, 교과전담제라는게 있는데 그 취지가 좀 다르지 않은가 이렇게 봅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다마는 중치교사를 둔 것은 학교가 학급수가 큼에 따라서 학교가 큼에 따라서 거기 여유 교사를 뒀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하는 뜻에서 중치교사, 즉 부담임이 필요하지 않느냐하는 뜻에서 둔 것 아니냐하는 생각인

데, 교과전담제는 또 그게 좀 아니고 어떤 그 교과에의 전문성을 살려보자, 예·체능 같은 거, 이런 그 취지가 다른 그런 제도라고 보는데, 사실은 지금 그것이 같이 그냥 함께 운용이 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중치교사제도가 바로 교과 전담제다" 그럴때 그 각각의 취지를 살려서 그 다 취지가 다르리라고 봅니다.

그것을 분리해서 확대할 계획은 제가 찾아보지 못했는데, 그런 뜻은 없는가, 그 다음 아홉번째는 그 지정체육종목이 학교마다 있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확보 대책이 없습니다.

정말 이번 소년체전에도 가봤습니다. 다마는 그 엘리트체육이 역시 필요하다는걸 느낍니다.

물론 보편적인 일반체육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저 엘리트체육을 넣어야 될텐데, 그래서 지정종목을 만들어서 하는데 거기에 예산에 대한 확보대책이 없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거 아니냐, 좀 거기에 대한 예산대책이 연차적으로 이렇게 서있으면 그 실현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건데,

그렇지 못한데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으나" 하는 질문입니다.

그 다음에 열번째로는 각급학교의 청소년단체활동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물론 학생의 희망에 따라 하는 것이겠습니까만, 요즘 좀더 그 인간교육차원에서 조금만 더 일반화시킬 계획은 없는가, 물론 아까 제가 말씀드려 조금 저 모순이 되는 것 같습니다마는 사회교육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데서는 오후 3시면 전부 학교가 문을 닫고 나가서 학생들이 활동을 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그런식의 자율적으로 청소년단체도 할 수 있는 겁니다마는, 아직은 그렇지 못한 단계에서 "좀더 그 일반화시킬 계획같은 것은 없는가" 하는, 질문을 너무 많이 드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영세

다음은 장충호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장충호위원

장충호위원입니다.

21세기의 국제화, 다변화에 대비한 고등학교 제2외국어 교육의 강화방안은 어떤 것인가, 또 교사의 해외어학연수 계획은 추진되고 있으나, 학생 교류 계획의 실재는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이걸 어떤 방법으로 추진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영세

예, 질문서를 내지 않으셨더라도 지금 질문하실 위원님 있으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님 질문 없으십니까?
(김광수위원 "없습니다." 하고 답변)
또 다른 분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지금 시간 11시50분입니다.

점심시간도 다 되고해서, 또 답변 준비도 있고 해서 답변준비와 오찬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은 14시까지로 하고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4시 03분 회의계속)

● 의장 김영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관리국장, 행정관리담당관, 중등교육국장 순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관리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리국장 신재철

관리국장 신재철입니다.

먼저 권혁풍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학의 재정 자립화 계획과 부실사학의 공립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사학의 재정자립화 계획을 말씀드리면 현재 본도내의 사립학교는 중학교가 20개교, 고등학교가 20개교 총 40개교가 있습니다.

그 중에 금년 3월 1일 개교한 현도 상고를 제외한 39개교가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학교는 평균 74.6%, 고등학교는 45.8%, 전체평균 56.4%를 보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정 지원 보조율이 높은 이유로는 인건비의 상승과 수업료의 소폭인상 그다음에 근본적인 법인의 영세성등으로 해마다 보조율이 상승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재정자립화 계획을 말씀드리면, 현재 저회도로서는 재정자립화 방안이 대단히 어려운 현실입니다.

다만 자립화 방안으로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은 중·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징수를 자율화하는 방안과 사학관련 법령 개정등이 연구·검토되어야 하지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실례를 말씀드리면 현재 법인 운영비등을 우선 충당하고, 그다음에 학교 전입금을 80/100을 충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법인의 운영비 대부분을 점하고 있는 인건비등이 국고에서 부담하는 방법으로 해주면 그런 운영상의 여러가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

니다.

둘째, 부실사학의 공립화 방안을 말씀드릴려면 먼저 부실 사학에 대한 교육부의 규정은 학급수 6학급이하의 학교, 학생수 300명 이하인 학교를 영세 사립학교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 도내 영세 사립학교수는 4개교가 되겠습니다.

중학교가 모두 해당이 되는데, 괴산의 청안중학교, 영동의 추풍령중학교, 정수중학교, 심천중학교가 영세 사립학교로 분류가 되겠습니다.

공립화 방안은 현재 교육부에서 연구 검토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립학교법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행정쇄신과제로 본도에서 선정을 해서 중앙에 건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영세사립학교 공립화 유도의 대책으로는 교육용재산은 교육감에게 기부채납을 하고 수익용 기본재산은 설립자에게 환원시키는 방안을 들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사립설립 목적의 변경으로써 학교목종을 폐지하여, 사회복지법인등으로 목종을 변경하는 등, 사립학교법 개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권혁풍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인간 중심의 쾌적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한 현대화 계획과 현대화 시범학교 건립계획 내용에 대하여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인간중심의 쾌적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한 현대화계획으로는 학급당 학생수용인원 변화에 따른 교실 공간조성과 획일성을 탈피한 교실배치 및 형태의 다양성을 추구하여 아름답고 현대화된 건물을 조성하고 다목적 사용공간 확보 및 용도에 따라 공간구성을 쉽게 바꿀 수 있도록 실내공간을 융통성있게 구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저학년과 고학년의 놀이공간 즉, 운동장등을 실내운동장과 그 다음에 실내 놀이공간을 구분하고 저학년의 화장실을 교실옆에 설치함으로써 가정과 학교의 생활이 유리되지

않도록 하는 등 화장실을 별도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터 있는 통로등을 설치해서 통풍과 채광을 고려하고 이러한 제반 시설을 할 때에 다른 교사신축보다는 약 30% 정도의 사업비가 더 추가 소요되는 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건립계획 추진은 현재 충주 연수국민학교가 지금 신축공사중에 있으며, 30학급 규모로 신축공사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년과 후년도에 제천 하소국민학교가 내년에 건립예정으로 있고, 그 다음에 괴산의 명덕국민학교 교사 개축으로 현대화 시범학교를 건립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충북교육 발전계획 시설부문 투자계획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1992년부터 2천년대까지 부족교실이나 특별교실, 노후교실 개축등을 통틀어서 1,465억여원을 투입할 예정이며, 학교 시설로는 30개교를 건축할 예정으로 1,180억 정도를 투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총계 2,647억원이 투입될 전망으로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현대화 시범학교는 현재 충주 연수국민학교에 41억원, 그 다음에 제천 하소에 41억원, 괴산 명덕에 20억원을 투입해서 시범학교를 건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 권혁풍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렸습니다.

● 의장 김영세

예, 또 다음 진행하세요.

판 위원 답변없어요?

다하고 난 다음에 보충질의하세요.

예, 그럼 관리국장님 답변 다 됐습니까?

그럼 잠깐 계세요.

권위원님 보충질의 없습니까?

● 권혁풍 위원

예.

● 의장 김영세

관리국 소관 없어요?

예,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행정관리담당관 이기수

행정관리담당관 이기수입니다.

지난 23회 임시회기중 교육감께서 보고한 교육현안문제와 관련하여 박병해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교육행정의 잘못된 관행이나 행태 또는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실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새정부 출범이후 신한국 창조를 위한 행정 쇄신 작업이 범국가적 차원으로 전개되고 있음은 우리 모두에게 잘 알려진 사실이며, 우리 교육청에서도 잘못된 관행이나 제도를 과감히 개선함으로써 문민정부의 개혁의지에 부응하기 위한 실천대책으로 93년 4월부터 교육위원회 관계관, 학부모대표, 일선학교 교원대표, 그리고 교원단체 연합회 대표 본청 간부진으로 구성된 행정쇄신 대책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간 2차에 걸친 대책반회의를 개최하여 모두 30건의 행정쇄신과제를 발굴하였으며, 이중에서 11건은 교육부와 타부처에 개선을 건의하였고, 나머지 19건은 자체적으로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개선된 과제를 몇가지

말씀드리면 첫째, 종래의 중고등학교 전입학 추첨배정을 월1회만 실시하던 것을 주1회 이상 실시토록 개선함으로써 전입학 배정대기 기간동안 거주형편때문에 어려움을 겪어왔던 학생과 학부모의 불편을 줄이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둘째, 청주·충주·제천등 전보경합지역에 대하여는 교사수급 예고제를 실시함으로써 전보내신으로 인한 다수 교원의 심적동요를 최소화하고 점수가 부족한 전보 내신자가 요행으로 경합지역에 전보되는 불합리한 현상을 방지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셋째, 제증명 발급업무를 모사전송 또는 전산화하여 발급함으로써 원거리 민간인의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줄여 주었습니다.

또한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러한 행정쇄신 추진의 가시적 성과 거양을 위하여 교육행정 모니터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니터 요원은 학부모 80명과 공무원 40명등 12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제도의 취지는 이들을 통하여

학교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나 고충등을 폭넓게 또한 여과없이 수렴하여 교육정책 결정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시대에는 주민들의 교육에 대한 적극적 관심을 가지고 활발하게 동참하여야 교육발전이 기대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일선 교단의 입장에서 그러한 불합리하거나 불편스러웠던 제도나 관행을 총망라하여 적극적으로 개선을 추진할 것이며, 이러한 행정쇄신 업무는 적어도 교육풍토의 바람직한 변화가 가시화되는 수준까지 추진함으로써 일선교단을 우선 지원하는 교육행정 체제가 구축되고 신뢰받는 교육행정문화가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박병해위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영세

행정관리담당관실에 대해서 우선 박병해위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 박병해 위원

행정쇄신 대책 과제 해결을 위한 위원회가 조직됐다고 하는 얘기는 지금 처음듣는 얘인데.....

● 행정관리담당관 이기수
대책반입니다.

위원회는 아닙니다.

● 박병해 위원

이런것은 우리도 사전에 좀 알았으면 참 좋겠는데, 그리고 내가 질문한거는 행정적으로 불합리한 것은 이렇게 이렇게 고쳐야 되겠다, 그건 뭐 언제든지 참 필요한 얘기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새한국인 뭐 새한국 건설 여러가지 요새 자정에 대한 목소리가 참 많은데, 현재 그 교육감이 발표한 이 행정쇄신을 제외한 문제제는 이것도 대책반이라고 하는 것이 조직이 돼서 될 자꾸 이렇게 잡아내서 쇄신을 한다니까 참 다행한 일인데, 근본적으로 교사들의 하나하나에 소신과 신념이 없고 이때까지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부패성 이것을 어떻게 자정운동으로서 원상복구를 하느냐하는 문제, 이게 어떻게 돼야

하느냐 이런 문제, 그게 없이는 아까
여기 질문한 것과 마찬가지로 선생님
들이 그게 안되는데 그 바탕위에서
아이들을 어떻게 어떻게 길러내겠다,
어떻게 어떻게 해야되겠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것 또 공론이에요.

"빌 공"자예요

그래 교육감이 요번에 낸 그것도
이게 각 교육청을 통해서 다 학교에
갔을텐데, 그 실천계획이 하나하나
날날이 나타나지 않는 한 그건 공론
에 지나지 않겠느냐, 이런 질문이
예요.

● 행정관리담당관 이기수

앞으로도 그것이 일선현장에서 시
대가 변화가 되고 또 교육제도 뭔가
달라져야 되는 그런쪽으로다 전환되
야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박병해 위원

이거 얘길하면 참 여러가지 좋지
않은 얘기 많이 나올것 같아서 그만
뒀어야겠는데, 너무 심각하게 얘기할
수도 없고 이게 밑바닥에서부터 실
천계획이 자기들 나름대로 돼서 자기
들이 그걸 하나하나 해나가는 어떤

방법이 강구돼야지, 위에서 큰바탕을
이렇게 냈거든, 그것으로 그쳐서는
이거 실효가 없어요.

난 그걸 원하고 있는 거요.

● 행정관리담당관 이기수

예, 알았습니다.

● 의장 김영세

예, 또 다른분 보충질의없으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중등교육국장 말씀하시죠.

● 중등교육국장 나세웅

중등교육국장 나세웅입니다.

첫번째, 김응복위원님께서 질문하
신 "관리직과 전문직의 이원화, 대등
화 방안은" "관리직에만 연연하는
현실적 풍토의 개선책은" 이 질문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말씀 올리겠습니
다.

현행 행정제도상으로는 관리직하고
전문직의 이원화 및 대등화는 현재로
는 어렵고 또 그 다음에 법이나 제도
의 개선등으로 인해서 앞으로 연구,
검토할 문제라고 이렇게 생각이 돼서
간단히 이렇게 답변말씀을 올립니다.

두번째, 질의, 질문하신 수강능력자

의 사전선별 내용의 혁신등 제도의 개선책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변 말씀 올리겠습니다.

첫째, 연수대상자 선발은 건강상태나 또는 본인의 사유로 인해서 연수에 참여할 수 없는 자는 일단 제외하고, 그 다음에 또 추천된 자중에서도 동일연수하고 유사한 연수를 이수하지 않은 그러한 자중에서 경력순에 의해서 공·사립을 구분없이 공정하게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연수내용은 교원연수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12891호, 교원연수에 관한 규정시행규칙 문교부령 307호에 의거해서 그 설립된 교원연수원에서 연수과정을 수립해서 거기에 따라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세번째, 이 연수제도의 개선에 대해서는 신문지상에 누누이 보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교육부에서는 교육개발원에 의뢰해서 교원연수제도 전반에 걸쳐서 개선방안을 수립중에 있고, 7월2일날 교육부에서 교원연수제도 개선에 대한 공청회를 가질 그

러한 계획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세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 말씀 올리겠습니다.

앞으로 자율학습 보충수업의 폐지, 각종 학원의 대폭허용등이 예상되는 데 농촌학생들의 학력저하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하는 질문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첫째, 자율학습과 보충수업, 학원수강의 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올리고, 농촌학생들의 학력저하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율학습은 이것은 중학교 1,2,3학년 고등학교 1,2학년은 전적으로 폐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 학교의 교실 또는 학교에 설치돼 있는 도서관 이런것을 개방하는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보충수업은 역시 희망학생, 희망교과에 대한 보충수업, 이것은 지역실정의 학교장 재량에 의해서 실시하도록 이렇게 저희들 도에서는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교육부에서 전국적으로 실시할 수 없는 지침이 내려온다고하면 그때는 상황이 달라지리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학원 수강에 대해서는 이미 작년도 9월1일서부터 중학교는 개방을 했습니다.

고등학교도 역시 금년도 7월1일서부터 개방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번째, 거기에 따르는 농촌학생들의 학력저하에 대한 대책은 여러가지 방법이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몇가지만 대표적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첫째, 학생능력에 따른 과제학습의 이행으로 자기 학습력을 강화시키도록 한다, 그거하고 또 선생님들의 교수·학습의 개별화로 밀도높은 수업을 전개하도록 적극 추진한다, 그 다음에는 세번째가 클럽활동의 활성화로 취미와 소질을 제발해서 신장시키도록 한다, 네번째가 학력부진학생의 결손학습 보충을 위한 무보수 보충수업을 유도한다, 그 다음에 다섯번째가 학습환경조성과 학교시설의 개방으로 개별적인 자학, 자습의 내실을

기하도록 한다, 여섯번째가 많은 책을 읽는 습관을 기르기로 도농간의 학력격차를 줄이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네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 말씀 올리겠습니다.

"경쟁이 치열해질 미래 사회에서 핵가족, 독신주의, 산아제한등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는데 아이들이 자립할 수 있는 대책"은 "이기주의 인내심 부족, 과보호등에 대한 극기교육 강화방안"은 두가지에 대해서 답변 말씀 올리겠습니다.

첫째, 자립의식 함양 교육에 있어서는 첫째가 교육과정 정상운영과 혼화교육의 강화로 바른 가치관을 정립하도록 해나가겠다, 두번째가 고교생 가치관 교육을 2,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세번째는 어린이회, 학생회 운영의 활성화로 토론과 협동의 장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번째는 종합예능 발표회, 체육대회등 문화행사의 강화로 각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섯번째, 우리고장 문화 유적지답사로 애향심 고취를 위해서 저희들 도에서 실시하는 것이 두번째로 충청 문화 답사를 금년도에도 2회에 걸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기 진로 교육 강화로 자기 이해와 자립의식을 고취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고, 상담활동을 강화해서 자기에 대한 자아실현을 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번째, 극기교육 강화방안으로써는 1인1단체 가입 권장으로 청소년 단체 활동의 활성화를 기하고, 학교 자체의 야영활동을 확대해서 현재 학교급별 1인 1회이상을 실시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학생은 1박2일, 중·고 학생은 2박3일 입니다.

또 본 도교육청에서 주관해서 실시하는 각종 수련활동을 실시하는데 거기에 고교생 수련이 2,520명은 단재교육원에서 실시를 하고, 조국순례대행진, 군부대 및 전방시찰 등으로 극기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서 김응복 위원님의 답변

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박병해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농간의 격차에 대하여 농촌각급 학교의 교육시설과 학습기자재의 낙후된 현실의 차와 학력의 현격한 차를 어떻게 보완 해소하며, 형평의 불균형을 바로 잡을 것입니까" 이 두가지 중에서 하나는 도농간의 교육시설과 학습기자재의 현실적인 격차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뭐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교육시설은 농촌학생수의 감소로 잉여교실을 활용한 특별실의 확보하고 그 다음에 체육장시설은 농촌이 도시에 비해서 여유가 있는 편입니다.

현재로서는.

또 학습기자재면으로 봤을 적에는 과학기자재는 도시는 71.9%입니다, 비율로 환산했을 적에.

농촌은 68.8%, 그러나 복사시설이라든가 TV라든가, 또는 컴퓨터등은 거의 다 농촌이 먼저 비치돼 있는 그러한 실정에 있고, 단 과학시설 이용 학생수 재적형편에 의해서 상당히 농촌은 그런 시설면에서 낙후가 돼있다

고 보겠습니다.

이러한 것은 연차적으로 시설을 확충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촌의 학생들에 대한 학력차의 해소방안, 이것은 김응복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과 유사하기 때문에 김응복위원님의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에 두번째로서 "방과후의 전원체육활동 계획은 수립돼있는가"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말씀 올리겠습니다.

93학년도 학교체육 운영 계획에 1인 1운동을 바탕으로 종목별 자생적 클럽을 조직하여 자율체육활동을 생활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는 1인1운동 및 클럽별 활동을 자율적으로 참여하도록 적절한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해서 학생 개인의 소질과 흥미에 따라 활동함으로써 평생 체육의 기반을 다지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세번째는 종목별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해서 체육인구를 저변확대하고 체육활동의 생활화를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고 있으며, 네번째 현재 60%

밖에 확보하지 못한 학교체육시설을 점차적으로 확보해서 적극 개방함으로써 체육을 생활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박병해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학생 기초 체력검사 기준표는 전국적으로 작성이 돼서 1년에 1회 9월달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기초체력 기준표 작성활용은 이중으로 중복되는 그러한 사례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간단히 답변말씀 올립니다.

이상으로써 박병해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을 마치고, 권혁풍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도서관의 운영에 있어서 컴퓨터를 활용할 구체적 계획은 있습니까"하는 질문입니다.

저희들이 현재까지로서는 거기까지 손이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인력이나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갖추어 있다고 답변말씀 드리기가 죄송합니다.

다만, 94학년도 내년입니다.

내년도부터 지역대표 공공도서관의 전산계획 일환으로 중앙도서관의 장서를 컴퓨터에 입력, 자료를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전산화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외에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에도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번째는 국립중앙도서관과 지역대표 공공도서관과의 전산망 연결사업으로 본도의 중앙도서관 장서를 국립중앙도서관과 연결, 상호 장서를 열람하는 전산화계획도 아울러 추진하고 있으며,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질문하신 학교 지정 체육종목의 보완·확대 계획과 예산확보 대책을 네가지로 설명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첫째가 체육 영재교육의 일환으로서 국민학교 체육을 활성화해서 학생개 개인의 잠재능력과 특기를 조기발굴해서 신장시켜 나가며 우수선수로 육성해서 중·고등학교로 연계 진학, 지속적으로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현재 체육특기종목 육성학교 지정은 국민학교가 110개, 중학교가 77개교 고등학교가 59개교에 487종목이 종목수는 예를 들어서 체육이 두학교에 지정이 돼있으면 두개로 이렇게 가산을 해서 487종목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그 활동사항을 점검해서 타당성 및 적법성 여부를 검토·분석해서 보완시켜나가면서 가능한 범위내에서 점차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두번째는 특기종목 육성의 효율성을 높이고, 좋은 성과를 거두기 위한 방안으로 순회코치를 현재 26명에서 다음에 34명으로 증원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고, 지정종목학교와 체육교사의 특기가 부합되도록 적소에 배치하도록 현재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더 가일층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번째에는 예산확보는 지정종목육성 성과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만큼 작년도 9월1일 창조금품 근절 조치로 인한 체육예산 인상요인을 분석·검토해서 중·고등학교에 육성회비를 24%인상했으므로 인해서 중·고등학

교 체육훈련비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그렇게 크게 걱정이 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국민학교가 육성회가 없기 때문에 좀 국민학교에서는 육성하는데 좀 애로가 있는 걸로 봅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작년도에는 예산절약액중에서 8억원을 이것은 집행했습니다.

문화체육부에서도 육성 우수학교에 특별육성지원금으로 매년 교부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24종목에 6,019만원을 지원을 했고, 매년 종목수 확대해서 나간다면 거기에 따라서 예산지원이 좀 증액이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세번째는 각급학교의 청소년단체활동을 일반화시킬계획은 첫째가 청소년의 또래집단 특성을 살려주고,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청소년을 건전하게 육성시키고자 준거 집단으로 청소년단체를 조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청소년단체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서 본도 교육청에서는 1인1단

체 가입을 적극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유능한 청소년단체 지도자를 다수 확보하기 위해서 매년 각급학교 교사로 하여금 청소년 지도자 연수에 연계적으로 참여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세번째는 청소년단체 활동은 연맹의 활동에만 의존하지 않고, 학교별 프로그램에 의거해서 각급학교별로 특별활동 시간이나 방학등을 이용해서 활동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본도 교육청의 청소년단체 조직현황을 말씀드리면, 다섯개 단체 보이스카웃, 걸스카웃, 청소년연맹, 해양소년단, 청소년 적십자해서 91년도에는 44,309명이었는데, 이것이 재학생의 19%였습니다.

92년도에는 55,643명에 재학생의 24%, 금년도에는 60,132명에 재학생의 28%로 이렇게 연년이 증가 추세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권혁풍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장충호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

해서 답변 말씀 올리겠습니다.

21세기의 국제화, 다변화에 대비한
고등학교 제2국어 교육의 강화 방안
은 교사의 해외연수 계획은 추진되고
있으나 학생교류계획의 실재는 어떻
게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두가지 답
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제2외국어 교육의 강화방안
은 첫째가 고등학교 제2외국어 선택
의 다양화 및 복수 선택을 적극 권장
하고 있고, 외국인 담당교사의 어학
연수를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독어교사는 독일문화원 협조로 해
서 매년 5명씩 독일에 가서 연수를
마치고 옵니다.

불어교사는 주한 프랑스 대사관과
협력해서 매년 여기도 5명씩 프랑
스에 가서 연수를 마치고 옵니다.

일본어교사하고 중국어교사는 교육
부 및 일본 문부성 어학연수에 적극
참여해서 연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2외국어 교실운영을
해서 지금 충주에서 모범적으로 실
시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어에 영재성을 지닌 고교1년생

대상으로 해서 1년간에 2개 내지 3개
의 외국어를 교육을 받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외국어 학력경시대회
또는 말하기 대회를 개최해서 우수학
생을 발굴해서 격려하고 외국어 대학
으로 진학토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어 고등학교의 교육
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원어민
교사를 활용하고 있고, 우수 외국어
교사 대치 또는 어학연수기회를 적극
부여를 하고 있고, 학생들에 대한 해
외연수도 권장을 해서 작년도에는 미
국을 다녀오고, 일본도 다녀온 그리
한 경험이 있습니다.

두번째로 학생교류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현재 각 학교 및 청소년
단체에서 방학중에 학생들은 다양
한 그러한 내용으로 시행을 하고 있
고, 외국어 고등학교는 아까 말씀드
린대로 자매결연을 맺어 가지고서 일
본하고 교류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천시내 고교생이 일본
고교생과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일년에 왔다갔다 이렇게 해서

민박으로다 해서 제천농고, 제천여고 제천고등학교 학생들이 실시를 하고 있고, 청주에서는 청주여상이 일본학생들과 서로 교류를 하고 있고, 대성여상이 중국의 학생들과 서로 교류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으로 돼있습니다

이상으로서 각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에 대해서 답변말씀을 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영세

예, 수고하셨습니다, 중등교육국장한테 보충질의할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응복위원 거수로 발언신청)

예, 김응복위원 질의하세요.

● 김응복 위원

맨 마지막에 이 각처에 산재해 있는 학생 수련원 그 수질오염 기타 환경오염중에도 수질오염이 신문에 자주나오, 진천 학생수련원 이런데 지금 가령 각 수련원에 인접해 있는 사용하고 있는 그 수질오염도는 어느 정도며 그 원인을 일으킨 가령 그 업소라든가 업소에 대한 그 시정책이라

고 할까, 보상이라고 할까, 뭐 이런 관계는 어떻게 돼있습니까?

● 중등교육국장 나세웅

저희들 도내에서 거의 가 다 11개 교육청에 수련원이 그 자연학습원 다 있습니다마는 가장 지금 저희들이 심각하다고 보는 것이 진천 종합야영장의 그 수질 오염입니다.

그래서 진천종합야영장장께서 진천군수와 여러차례 협의도 하고 그래서 좀 처음에 보다는, 작년도 보다는 금년도가 좀 나아진 그런 현상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상수도원에 거기에 뭐냐하면 공장, 이런것이 건립돼 있기 때문에 그 공장에서 나오는 폐수, 이것을 아마 조치하는 사항으로 지금 적극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응복 위원

다른데는 괜찮아요? 쓸만.....

● 중등교육국장 나세웅

현재까지 다른데는 크게 뭐 그렇게 수질오염이 극심하다하는 그런 사항은 아직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 의장 김영세

또 다른 위원 보충질문.....
(장충호위원 거수로 발언신청)
예, 장충호위원님 하시죠.

● 장충호 위원

학생 그 교류관계에 있어 가지고서
자매결연을 맺어 가지고, 우리나라
고등학교 학생이 일본에 가고, 또 일
본의 학생이 우리나라에 오는데 거기
그 소요되는 그 비용에 따라서 어느
만큼의 성과가 있다고 인정하십니까?

● 중등교육국장 나세웅

글쎄, 저희들이 저희들 도 자체에
서 그 학교간에 외국학생들의 교류는
없고, 학교자체적으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 갔다와서의 그 교
장선생님의 말씀이나 또는 인솔한 선
생님의 말씀, 또는 학생들의 말씀을
들어보면은 효과는 컸다, 그러니까
단 한가지 갔다온 학생과 가지않는
학생간에 있어서의 위화감같은 것은
약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대부분이 여학생들이 저희
들 도에서는 많기 때문에 그러한 위
화감 문제도 큰 문제가 아닌가 이렇

게 생각이 됩니다.

효과는 뭐 외국 여러가지 사항을
보고 오니까 다르겠죠.

● 의장 김영세

예, 또?

(권혁풍위원 거수로 발언신청)

예, 권혁풍위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 권혁풍 위원

중등교육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
습니다.

이 장기발전계획이라면 앞으로 10
년을 내다보고 하는 계획인데 현재
그 각 학교의 도서관을 보면 글자 그
대로 유명무실입니다.

장서의 수라든가, 그 활용도라든가
이것이 거의 있으나마나 할 정도로,
물론 학교마다 다르겠습니다마는 그
런 상태에 현재 있는데, 앞으로 10년
동안에 참 학교도서관의 전산화는 생
각도 못하고 계시고, 그냥 중앙도서
관 정도, 그 장서의 전산화 그저 이
정도만 생각하고 계신 모양인데 이렇
게 된다면 10년동안에 무슨 큰 발전
이 있겠느냐, 우리가 현재 그 수업지
도라든가 이것이 모두가 그야말로 선

진국하고 비교해 볼때 너무도 낙후돼 있는 상태인데, 이 도서관이 제대로 돼있지 않은 것이 다 그 원인이 거기 다 있는 것으로 봅니다.

도서관을 활용할 줄 모릅니다.

학생들이 도서관을 활용을 해야 모 든 것이 글자 그대로 자율학습이 되고 탐구학습이 되고 자기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해결 학습이 될텐데, 그냥 옛날 그대로 교사가 칠판을 이용해서 백목을 이용해서 그냥 일방 적으로 지도하고 전달하는 그러한 수업계획을 앞으로도 10년동안 계속 하 겠다는 애깁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10년동안 앞 을 내다보면서 이런 계획을 세울 필 요가 있느냐,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도서관은 말할 것도 없 고 학교마다의 도서관을 대폭 확충해 서 물론 예산이 따르는 얘기입니다마 는 계획만은 세워야 될 거라고 봄니 다.

물론 돈을 어떻게 거기에 조달하느냐, 이런 문제는 별문제로 치더라도

뭔가 계획만으로도 있어서 비전이 라도 제시를 해야만 거기에 따른 여 러가지 지원책도 나올테고, 정부에서 도 생각이 다를테고 뭐 해야될텐데, 우리가 "계획부터도 흐리하다" 할때 는 누가 도와줄 사람도 없고 우리 교 육은 백년하청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선 앞으로의 10년동안 각 학교에 있는 도서관의 장서를 대폭 확충함과 동시에 전산화시키고, 수업 방법을 도서관에서 자료를 아이들이 찾아서 탐구학습을 하는 그러한 방 법으로 병행이 되지 않고는 우리교육은 맨날 제자리 걸음을 면치 못하리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도 해주시고, 또 아까 그 학교별로 지정종목을 하는데 "중·고등학교는 어느 정도 육성회비를 인상해서 해결이 되는데 국민학교는 부족한 수가 없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국민학교는 어떡합니까

앞으로 10년동안 국민학교는 계속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그렇게 해서 찬 조금도 못 걷게 하고 교장만 그냥 절 절매게 만들고, 어떻게 할 방법이 계

획만이라도 서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중등교육국장 나세웅**

지금현재 중·고등학교에 있는 육
성회비가 24%가 인상이 됐기 때문
에 거기서 충당할 수가 있습니다.

국민학교는 육성회비가 없기 때
문에 도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 **권혁풍 위원**

8억원을 지원하신다고 했는데 그럼
그거 가지고 다 문제가 됩니까?, 해
결이.....

● **중등교육국장 나세웅**

만족할 수는 없죠.

● **권혁풍 위원**

또 도서관 말씀도 해주세요.

● **중등교육국장 나세웅**

그 다음에 도서관에 대해서는 아까
는 학교도서관 운영에 있어서의 컴퓨
터활용의 방안을 말씀을 드렸기 때
문에,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 말씀을 드렸고, 저희들 도
지금 참 부끄럽게도 학교 도서관이
라고 하는 그러한 명칭이 붙을 수 있는
것은 7개밖에는 없습니다.

영동농공고에 하나있고 제천고, 괴
산고, 음성고, 충주농고, 신흥고, 중
산외국어고, 사립학교가 들해서 공립
학교가 다섯개해서 7개교입니다.

그런데 각 도서실, 학교에는 도서
실은 있습니다.

그 도서실에 비치돼 있는 그 장서
의 권수로 볼것 같으면 저희들 도가
최하가 2천권에서 최고 많은 학교는
8천권 썩이 있습니다, 도서는.

물론 그 도서중에서는 또 옛날도서
도 있겠지만은 옛날 도서도 다 보관
이 돼서 학생들이 볼 수 있는 기회가
마련이 돼야 한다고 봅니다.

폐기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이러한 도서관의 실정이고 하기 때
문에 지금 권혁풍위원님께서 참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참 학생들이
도서관에서 이루어져야 하지만은 현
실정이 여러가지 입시에서 해방을 못
시키고 있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는
그러한 방향으로 나가도록 이렇게 하
고 도서관에 대한 것은 그 97페이지
에 있습니다.

도서관 확충계획이 거기 나열돼 있는데, 국민학교는 93년도에 4개, 94학년도에 4개, 95학년도 4개해서 2001년까지 15개 그렇게 하게 된다고 하면 누계가 257개가 나옵니다.

중학교도 역시 4개교에서 하면은 96년도에 가서는 118개가 나오고, 고등학교는 두개씩해서 96년도에 가면 66개의 도서관이 건립될수 있는 그러한 확충계획은 수립은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산화계획은 일시에 할수도 없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94학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중앙도서관을 기점으로 해서 각 지역교육청의 도서관과 그 다음에 학교도서관으로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권혁풍 위원

글쎄 인제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말씀이야 좋은 말씀인데요, 이걸 계획을 안세우려면 모를까 세우려면 몇년도에 가서 적어도 책, 장서를 몇권, 무슨 도서관 몇개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장서가 몇권 정도 1인당, 학생 1인당 얼마씩 그 활용도

는 어느 정도, 좀 그렇게 구체적인 답변을 제가 요구하는 건데, 그런 계획이, 계획을 안 세우려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세우려면 10년앞을 내다보면서 뭔가 비전을 제시해야 우리가 그때가 올 때가 기다리고 뭔가 협조할 일은 협조하고, 거기에 대한 인식도 달라지고, 이렇게 집행부에서 뭔가 좀 교육을 선도적으로 이끌어가는 그러한 꿈을 제시하는 그런 것이 아쉽다고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 중등교육국장 나세웅

예, 거기에 대해서 98페이지에 학교의 도서확충계획도 계획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말씀을 드리면은, 국민학교가 93학년도에서부터 권수가 752권으로 확충하고 94학년도에 가서는 827, 95년도에 910권, 96년도 연차적으로 초·중·고에 대한 도서확충계획도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 권혁풍 위원

전산화 계획도 돼있습니까?

● 중등교육국장 나세웅

아직 전산화계획은 못 돼있습니다.

● 권혁풍 위원

그럼 1인당 몇권씩은 다 돼있죠?

● 중등교육국장 나세웅

예.

● 권혁풍 위원

그거는 저도 한번 보기는 봤습니다
마는, 전산화가 좀 아쉽고, 물론 돈
이 따르는 거니까 괜히 허구적인 그
런 계획을 세운다는 것도 물론 어려
운 일입니다마는, 그래도 계획을 세
운다면 뭔가 점차적인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서있어야만 저는 된다고 이
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간 다같이 노력해서 뭔가 앞으
로 서로.....

● 의장 김영세

또.....

(김광수부 의장 거수로 발언신청)

에 김광수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
랍니다.

● 부의장 김광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한 두가지만 좀 물어볼까
싶습니다.

학생 1인1단체 가입을 권장하고 계

신다고 했는데, 이것이 매년 91년,
92년, 93년도로 봐서 매년 학생이 그
청소년 단체에 가입하는 학생이 많이
늘어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취지로 봐서 대단히 잘 돼있다고,
또는 좋은 현상이라고 이렇게 보면서
초·중·고등학교 학생이 가입돼있는
그 단체별, 지금 5개단체라고 했는데
그 단체별로 어디에 얼마만큼 가입이
돼있고, 또 남녀별로 어떻게 가입이
돼있는가 이것좀 묻고 싶고, 왜 그러
나할 것 같으면은 이 5개단체에 가입
을 하려면 학생에게 부담이 있는가,
없는가, 회비를 내야 되는가, 안 내
야되는가, 또는 어느 단체에는 한번
만 내고 말고, 어떤 단체에는 매년
내야되는 그러한 회비가 있는 줄 알
고 있는데, 이런 사항이 어떤가, 이
것 좀 분석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체육시설이 지금 현재
60%정도 갖추어져 있다고 이렇게 해
서 점차 40%를 더 시설하겠노라고 이
런 말씀이 계셔서 대단히 60%라면 상
당한 그 수준에 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봐서 반갑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물들이 주로 어떤 것을 보고서 60%라고 하고 있는가, 이것 좀 다시 좀 말씀을 드리고, 또 이 시설물이 있는 것을 학생들이 골고루 다 이용을 하고 있는가, 그냥 시설만 해 놓고 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 시설한 것을 제대로 잘 활용하고 이용을 하고 있는지, 이것 좀 말씀을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체육에 관해서 보통체육과 지정체육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보통 체육이라고 하면 학생들 전체에 인제 해당하는 체육인줄 알고 있고, 지정종목 체육이라고 할 것 같으면 학교마다 어느 학교는 무엇을 체육을 해라, 뭐 축구를 해라, 배구를 해라, 농구를 해라 이렇게 지정돼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보편적인 정도에 그치고 만다고 하면 괜찮지만은 이 지정 종목 체육에 관해서는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소년체전이 있기 때문에 소년체전하고 연결이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선정돼있는 이 지정종목에 한해서 이 혼련비, 이것을 어떻게 지금 현재 충당하고 있는가, 또 한가지는 이 소년체전 말이 나왔기 때문에 이 소년체전의 주관부처는 교육부인가, 그렇지 않으면 체육부인가, 이것 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영세

예, 답변하시죠.

● 중등교육국장 나세웅

제가 하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5개 단체에 가입된 학교별로 남녀별로 가입된 현황은 지금 여기에서 제가 말씀하기가 어렵고, 서면으로 그것은 말씀을 드리면 어떨까요?

서면으로 드리면.....

● 의장 김영세

예, 그러면은 이렇게 하세요.

그거 뭐 간단한 거니까, 이따 정회시간 주고서 정회시간 한 10분 줄테니까, 그 숫자만 파악하시면 되니까, 이따 정회이후에 답변하세요.

● 중등교육국장 나세웅

예, 그러면은 우선 그 5개 단체에

대해서는 이따가 말씀을 올리기로 하고.....

● 부의장 김광수

예,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이런 것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아마 선생님이 보이스카웃에 들어있는 선생님, 또는 학교 교장이 보이스카웃에 들어있는 학교 선생님, 또는 지도자가 그 단체에 들어있는 그 지도자가 아마 학교별로 다 각각 다 트리라고 봐집니다.

이렇게 볼 적에 지도자가 있는 그 학교의 학생들이 그 단체에 많이 가입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사실이 그런것인지 이것도 아울러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영세

예, 그럼 그건 이따 정회시간 줄테니까 그 후에 답변하세요.

● 중등교육국장 나세웅

예.

● 의장 김영세

또 다른 사항 없으십니까?

● 부의장 김광수

체육시설 관계.....

● 중등교육국장 나세웅

예, 체육시설관계 그 기준은요, 시설기준령이 92년 2월달에 개정이 돼서 과거에 95%이상으로 이렇게 확보하도록 돼있었는데, 현재는 60%이상으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기준령, 시설에 대한 기준령이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겸해서 드리면 이 실업계 고등학교의 기준령도 70%로 돼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도에서 체육시설이 60%정도 갖춰져 있다면 그 기준령에 비취했을 적에 저희들은 각 학교의 시설은 60%를 갖추고 있다, 활용도에 따라서는 그 학교의 체육교사의 열의와 또는 관리자의 열의가 다분히 반영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부의장 김광수

시설물이 어떤 것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 시설물이, 시설물을 좀 열거해 주세요.

● 중등교육국장 나세웅

시설물이라고 하면 첫째 운동장에 비치돼 있는 농구대, 배구대 그 다음에 트랙, 그 다음에 또 축구대

여러가지가 있구요, 그 다음에 또 정구코트, 그 다음에는 또 이 각자 내부에서 또 실시하고 있는 것 뭐 여러가지 종류가 있지요, 뭐 그거야, 체육에 관한 종류는.....

예를 들어서 쉽게 말씀드리면 라켓트니 공이니, 축구공, 배구공, 야구공 여러가지 종류가 많지요 뭐.

● 부의장 김광수

그것은 우리들이 운동장을 갖춰 놓으면 보편적인 얘기 아닙니까?

뭐 운동장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보편적으로 축구대 세워놓고 철봉 놓고 또는 배구코트 있고 웬만하면 농구코트 놓고 하는 것은 보편적인 것 아니에요?

● 중등교육국장 나세웅

그게 시설이에요.

체육시설.....

● 부의장 김광수

그럼 "그것은 잘 활용이 되고 있는가" 이것은 인제 체육 "그 학교의 체육담당자에 의해서 좀 달라진다" 이거죠?

(중등교육국장 "예"하고 대답)

한가지 좀 지적을 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 싶은데, 지난 5월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MBC에서 옥천에 모학교의 체육시설이 잘 돼있다고 해서 가본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보도결과는 아주 그 시설이 돼있는 걸 하나도 이용 안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돈을 들여서 체육시설을 해놓고서 먼지가 뽀얗게 켜있는 것이 이게 뭐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리지 않습니까?

● 중등교육국장 나세웅

어느 일개학교에서 그런일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 교육계로서 참 면목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가지나.....

● 부의장 김광수

그런데요, 그 체육시설은 그 학교에만 이용하라고 하는 시설이 아니었어요.

그 주변학교에서 와서 그 체육시설을 이용하라고 돼있는 시설이었습니 다.

그 돈 들여서 이렇게 시설을 해놓고도 그 시설을 이용 안하면 뭐하는 겁니까?

● **중등교육국장 나세웅**

그런 분야에 있어서는 앞으로.....

● **부의장 김광수**

아니 그렇다고 하면서, 그렇다고 하면서 체육시설은 60%가 돼있는데 앞으로 100%하면 이거 뭐합니까?

이렇게 좋은 시설이 있는데도 이용을 안한다면은.....

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중등교육국장 나세웅**

100%를 한다고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지 않고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하면 어느 학교는 60%가 안된 학교도 있고, 어느 학교는 56%가 된 학교도 있고 구구하죠.

● **부의장 김광수**

이거 보도된 다음에 국장님이 점검을 해 보셨습니까?

● **중등교육국장 나세웅**

예?

● **부의장 김광수**

이 저 시설물 점검을 해 보셨어요?

이 보도가 나온 다음에 이 시설물을 점검을 해 보셨느냐, 이겁니다.

● **중등교육국장 나세웅**

저는 그 신문을 보지를 못해서 점검 못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 **부의장 김광수**

말씀도 못 들었어요?

● **중등교육국장 나세웅**

예, 저는 보고 받은 일도 없고요.

● **부의장 김광수**

그럼 중등교육국장이라고 하고 담당국장이라고 하면서 이런 보도 사실도 모르고, 또는 그런 것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사항인지도 모르고 한다고 하면 누구한테 이런것을 물어야 됩니까?

● **중등교육국장 나세웅**

죄송합니다.

● **부의장 김광수**

옥천에 세군데 시설을 했다고 합니다.

했는데 아마 이런 시설물이 거개가 다 사장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 **중등교육국장 나세웅**

(사회교육체육과 체육담당장학관으로부터 귀뜸을 받고)

지금 부의장께서 말씀하신 것은 옥천 삼양국민학교입니다.

거기에 대한 체력시설 문제인데 활용은 잘하고 있으나 MBC기자가 왔을 때에 그때 사용을 안했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주위 웃음)

예, 이거 우스개소리 같습니다마는 이런 내용이네요.

잘 좀 이해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김광수**

아니 아니 글썄요, 국장님 그런것을 잘 알고 또 분석을 해보세요.

그냥 시설만 해주고서 끝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은 그 다음에 잘 활용을 하게끔 해야지만 교육이지, 어떤 것이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 **중등교육국장 나세웅**

저희들이야 활용하도록 모든 것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죠.

● **부의장 김광수**

아무리 권장하면 뭐합니까?

밑에서 안하면은.....

● **중등교육국장 나세웅**

저희들은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도록.....

● **의장 김영세**

아니, 그런데요.....

● **부의장 김광수**

아, 나, 저양반이 나 원.....

● **의장 김영세**

그때 그, 저 그 보도가 있고 난 다음에 점검을 해 보셨느냐, 이 달씀이네요.

● **중등교육국장 나세웅**

그것은 제가 보도 자체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 **부의장 김광수**

그 자체를 모르고 있는 이한테 뭐 점검을 해봤느냐 마느냐 물어보나 마나죠, 뭐.....

책임자로서의 그런 대답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겁니다.

● **의장 김영세**

그, 저 되셨습니까, 김광수위원장님?

답변.....

저 나머지 이따 정회이후에.....

● 부의장 김광수

아니 아니 가만있어봐요.

지금 활용이 잘 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이 교육자는 거짓말을 하면 안돼요
지금 우리나라의 교육풍토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교육자들이 거짓말해서 이런 교육 풍토가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이거 잘 활용이 되고 있습니까?

● 중등교육국장 나세웅

활용이 잘 되고 있는데, 그 학교가 잘 되고 있는데 그때 기자님이 오셨을 적에는 활용을 안하고 있었다고 하는 애깁니다, 하나의.....

변명도 아닙니다, 그것은.....

● 의장 김영세

아 그거는 불적에 우리가 그, 저 기자가 가서 봐가지고 그 순간만 활용안됐다고 그런 보도, 무책임한 보도가 있을 수 있겠어요?

● 중등교육국장 나세웅

저희들도 인제 여러가지 반성을 합

니다.

● 의장 김영세

그 당시에 확실히 활용이 안되고 있다는게 입증이 됐기 때문에 그런 보도가 나왔지, 그야 그때만 활용안했다고 해가지고 그런 무책임한 보도가 있었겠습니까?

● 중등교육국장 나세웅

예, 알겠습니다.

● 부의장 김광수

아니, 제가 지금 현재 국장님하고 말씨름하는 것 같이 하는 것은 국장님 답변하는 그 방법이 좀 달라서 그렇게 합니다.

그런 시설이 있는데 앞으로 잘 활용하게끔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되는데 "잘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때 와서 볼 적에 안해서 그렇다" 어째 그런 답변이 있습니까?

● 중등교육국장 나세웅

알았습니다.

● 부의장 김광수

아, 지금 참말로 활용을 잘하고 있습니까?

● 의장 김영세

저, 예, 되셨습니까?

그 나머지 이따 해 주시고요.

저 이상일위원님 질문중에 중등교육국소관 없었던가요?

예.

● 이상일 위원

전체적으로 21세기에 관한 건 이따 누가 해 주시겠죠, 뭐 이따가.....

● 의장 김영세

그 뭐 이것도 전체에 해당되는 건데, 이 질문하려다가 내 여러위원님들이 질문이 많았기 때문에 아까 안했는데 한가지 내 보완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참 그 발전계획안 수립하시느라고 많이 참 육보셨습니다.

그 노고에 대해선 경의를 드립니다
그 참 훌륭한 10개년간의 발전계획을 이루어진 것만 해도 마 대단한 성과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이왕에 그렇게 집대성한 내용이라면 좀 더 내용을 더 갖췄으면 하는 이러한 욕심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는 거니까, 그러한 점을 보완하시는 이런 입장에서 수렴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근데 거기서 내가 한가지 짚는다면 이제 이 교육자치가 실시되면 자치화 시대에 들어가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게 지방화 교육책, 이 지방교육정책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10개년 계획안의 발전계획안을 수립하였었지만서도 당장 1995년 서부터 실시돼야 할 다급한 문제가 지금 하나 있습니다.

즉 제6차 교육과정개정안이죠.

이 제6차 교육과정개정안은 1995년부터 개정한다고 했으면 불과 지금 1년반밖에 안 남았어요.

10년 앞이 문제가 아니라 1년 앞의 문제인데 그때 교육과정안이 지방교육과정안을, 지방화교육과정안을 40%까지 반영해야 한다, 이런 계획하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상당히 지금 우리는 지방교육을 위해서 지방화정책을 위해서 여기에 구체적인 어떤 방법이 지금 제안이 돼야 돼요.

제안이 돼야 하는데, 이 발전계획

안에는 24쪽에 그것이 반영이 돼있는데 구체적인 방안이 하나도 없거나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 물론 이전 초등교육소관에서 말을 한다고 하지만, 이 방안은 초등교육보다도 교과전담제가 실시되고 있는 중등교육에서는 더욱 중요하다고 이렇게 봅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복안이 지금 완전히 우리가 수립이 돼야지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10년 앞이 문제가 아니라 1년 반 앞이 문제입니다, 지금.

이런 구체적인 방안 하나 수립하지 못하고 어떻게 10년 앞의 것을 지금 여기서 운운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또 13쪽에도 미래사회는 기술정보화, 다원화 다변화, 개방화, 국제화, 통일 민주화에 대비한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러한 정보 문화 사회에서도 가장 핵심은 인간화입니다.

인간교육을 어떻게 하겠다, 인간화

를 어떻게 하겠다는 이런 점이 결여돼있고, 또 거기에도 역시 지방화 문제가 대두가 돼야 할텐데, 이점이 하나도 반영이 안돼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종합계획 가능한데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하실는지 모르지만 중등교육국장님의 가장 중요한, 우리도의 교육의 가장 그래도 핵심은 중등교육에 있는 겁니다.

이 중등교육국장님으로서는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가, 말씀을 한번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중등교육국장 나세웅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답변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선 6차 교육과정에 대해서는 국민학교하고 중학교는 95년 3월서부터 시행하도록 돼있고, 고등학교는 96년 3월서부터 시행하도록 돼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국민학교와 중학교에 대한 본도 자체의 교육과정 운영 지침을 현재 지금 연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94년 3월이면 각 일선학교에 지침이 내려가서 그 지침에 따라

서 일선학교에서 거기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1년간 여유가 있습니다.

고등학교는 95년 3월달에 고등학교에 교육과정운영 지침서를 본도 나름대로 작성을 해서 95년 3월까지 일선에 내보내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대해서 작업을 착수하고 있습니다.

● 의장 김영세

예, 그 작업을 착수한다면 여기 저권혁풍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중복이 됩니다.

원고하니 바로 이 지방교육, 교육과정의 지방화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학부모의 교육권을 거기서 어떻게 수렴해 줄 거냐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학부모의 교육권을 수렴하는 이런 방안은 거기서 채택이 지금 추진되고 있는지, 또 학부모의 교육권을 누구를 통해서 수렴할 것이냐, 이런 애깁니다.

그거 내 더 하나 질문하겠어요.

● 증등교육국장 나세웅

지금 거기 교육과정에 있어서 뭐

다 아시겠지만은 지금 그 교육부에서는 기초교과 그래서 그것이 32%, 그 다음에 교육청이 56%, 그 다음에 학교가 6%가 이렇게 대충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각 위원회가 조직이 되고 거기 조직이 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부형님들이나 또는 선생님들이나 또는 그 지역사회의 여러 교육계 담당하시는 분에 대한 아마 여러가지 의견 수렴이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의장 김영세

그러면 그것도 역시 또 집행청에서만 이렇게 바로 구상해서 그냥 그대로 집행하실 겁니까?

● 증등교육국장 나세웅

그러니까 그 교육과정은 교육부에 어떤 지침이 마련이 돼서 내려오면, 거기에 준해서 또 저희들도 나름대로의 지침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교육과정이기 때문에 저희들 본청에서 만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의장 김영세

물론 지금현재 법규상에는 지금현

제 규정상에는 집행청의 고유한 업무로 돼있어요.

그러나 교육본래의 성질에 있어서는 이것은 학부모의 교육권이 반영이 돼야 되고, 학부모의 교육권을 대변하여야 할 교육위원들이 여기 관여할 수 없는 교육자치법의 맹점이 있어요

그러면 실사 규정에 미비된 점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점을 우리는 보완해 찾아 나가서 보다 이상적인 교육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의욕이 있어야 할 것 아니겠느냐, 내 이런 얘기로.

● 중등교육국장 나세웅

네, 그래서요 저희들이 그러한 안이 인제 작성이 되면 위원님들한테 다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걸로 봅니다.

● 의장 김영세

글쎄 그게 인제 또 그것도 주마간산으로, 이런식으로 한마디하고서 넘어간다고 할적에 과연.....

● 중등교육국장 나세웅

그렇진 않죠.

그게 교육과정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냥 넘어가겠습니까.

● 의장 김영세

그러면은 예, 보충질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마치고 지금 저 부의장님이 얘기한 통계, 10분간 정회할테니까, 그 보고해 주시고 시간여유가 있기 때문에 오늘 저 초등교육소관까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대비하기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예? 더 보충질의 있습니까?

(박병해위원 거수로 발언신청)

예, 말씀하세요.

● 박병해 위원

그 아까 "도농간의 차를 어떻게 해소하는나"하는 답변에 특별교실을 유휴교실을 통해서 많이 마련하도록 하겠다, 또 실력차 같은 것은 뚜렷한 어떤 그 방안은 없고, 평소에 우리가 보통 얘기하고 있는 뭐 그런거 정도 이렇게 답변이 있었는데, 지금 우리가 질문하고 답변하는 이 문제는 여기서 답변으로 끝나서는 안될 것으로 봅니다.

여기서 답변이 된 거는 하나하나

기록이 돼서 요번에 만든 그 계획서에서 보완돼야지 되지, 보완이 안되는 답변은 이걸 해야 소용이 없는 거 이거 괜히 쓸데 없는 장난이지 이게.

그래서 각 학교에 현재 지금 군청 소재지만 해도 조금은 나운데 그 외면에 위치한 어떤 학교같은 거는 중학교나 고등학교나 뭐 전부가 다 마찬가지로 영어교실이 있습니까?, 뭐 거기 미술실이 있습니까? 무슨 뭐 특별교실이 거의 없어요.

또 그렇다고 하면 그 없는 거 대신 뭔가 그 학교에서 성의를 베풀어서 특별교실화하는 어떤 실적향상이나 뭐 이런것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현상태도 아닙니다, 이게.

그러면 이게 앞으로 도농간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그런것을 하겠다고 한다면 어떤교실, 어떤교실, 어떤교실은 몇년도에는 이렇게 확충을 하고 몇년도에 가서는 이런 교실까지도 확충을 해서 어떻게 해야겠다, 이런 계획이 거기 첨부돼야 할 걸로 압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간에 이 답변하는 내용은 적어도 그런 차원에서 정말로 우리 교육을 위한 답변, 이거 뭐 어떻게 어떤 이상적인 얘기는 하나하나한 얘기니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해서 해주시길 바라고, 실적향상차 같은거는 그야말로 참 시설도 좋아야지만 우수한 선생님이 촌에도 가서 근무를 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 마련이 없이는 이것 또 안될겁니다, 이게.

뭐 도서관에 가서 자율학습 많이 하게 한다, 이걸 말로는 뭐 얼마라도 할 수 있는거죠, 저게.

사실상 우리도에 도농간의 격차를 어떻게 해소하게 하느냐 하는 문제는 정말로 이거 심각한 문제면서 딱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게.

그러나 이게 이루어지지 않고는 정말 우리도의 큰 손실이 아주 엄청난 얘기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정말로 좀 구체적인 이런 계획을 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연령별로 이 기초체력에 기준표가 전국적으로 마련이 돼서 이것을 가지고서 각 학교에서 측정을

한다, 이거는 대개 연간 어느달서부터 어느달 사이에 실시하도록 돼있습니까?

● **중등교육국장 나세웅**

9월달에 실시하도록 되어있어요.

● **박병해 위원**

9월달에?

● **중등교육국장 나세웅**

예, 체력검사죠.

● **박병해 위원**

그럼 그것도 통계가 다 나와있어요?

● **중등교육국장 나세웅**

예, 다 나와있죠.

● **박병해 위원**

그 다음에 아까 그 "지진아는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질문을 드렸는데 이것에 대한 답변이 없었고, 또 아까 그 관리국장님도 답변을 안하셨는데, 감사편람이라고 하는 뭐 이런것을 만든다고 하면은 교감이나 장학사들도 이런 편람책을 하나 만들어 주면은 딱 쉽지 않겠느냐, 처음 보는 교감도 이런거는 제대로 참 수용을 할 수가 있지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의견을

물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은 어느 국장이 해주시는 건지 몰라도 그게 없었고, 또 교육공학에 대한 그 예산이 10억이 서있는데 아주 참 좋은 일이지만, 각 교과에 대한 교재·교구는 어떻게 마련하길래 거기에 대한 예산이고 그 답변요지도 그렇고, 그 계획서 안에도 일체 그 일언반구가 없어요.

그래 이것도 질문을 했습니다.

그 이것도 답변이 없고, 요건 또 어느 국장이 하는 지 몰라도 그런 등등의 문제가 아직 답변이 안돼서 기왕에 시간이 많이 돼서 휴회를 한다고 하니까 이젠 답변은.....

● **의장 김영세**

이 정회후에 들으시죠.

10분간 정회하고서.....

● **중등교육국장 나세웅**

답변을 안한것은 아직 각 국에서 답변이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병해 위원**

그럼 저 초등국장이 해요?

● **중등교육국장 나세웅**

예. 또 누가 하시든지.....

● 의장 김영세

예, 10분 후에 지속하셔도 됩니다.
보충질문도 그때 하셔도 되고.....

● 권혁풍위원

관리국장님이 제실 때 관리국장이
아까 발표하셨는데, 제가 쓰느라고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지금 질문이
서너가지 있는데 이것 좀 드리면 좋
을 것.....

● 의장 김영세

말씀하세요.

● 권혁풍위원

예.

● 의장 김영세

아, 관리국장

● 권혁풍위원

아, 관리국장님 계시니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 의장 김영세

예, 관리국장 지나가니까.....

● 권혁풍위원

아까 제가 듣는 동안에 좀 의문이
지금 다시 생깁니다.

세가지를 묻는데, 그 사학이 자립
화가 앞으로 곤란하다, 도저히 희망

이 없는 학교가 많다, 그래서 공립화
를 유도하는데 그 유도의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가, 과연 그 잘 따라와 주
는가, 뭐 걸림들은 없는가, 그거 하
나를 묻고요.

두번째는 제가 미처 못봐서 그런지
모르니다마는 그 학급당 인원을 연
도별로 어떻게 감축해나가는 건가
즉 현대화 된 그 교실을 만드는데 교
실만 잘 만든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따른 학생들의 급당 인원수가
점차 줄어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어떤 위원님이 말씀하신 우리
는 전세계 116위로다 이렇게 참 보도
에도 나왔습니다.

과연 참 어느만큼 급당 인원이 10
년 뒤에는 어떻게 줄어들 것인가, 이
것도 어디엔가 제가 있으리라고 보는
데 지금 당장 말씀을 못 들어서 묻습
니다.

그리고 세번째는 현대화 된 교실을
신축하는데 그 뭔가 어떤 학교, 어떤
학교를 짓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냥 무작정 어떤 어떤 학교냐, 아니
면 어떤 원칙이 있느냐, 즉 우선 순

위가 어떤 있을텐데, 예를 들어서 지금 박병해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도농간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도시보다도 농촌을 우선 한다든가, 혹은 뭐 큰 학교를 우선 한다든가 그런 원칙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 원칙이 뭔가를 세가지를 질문하고, 지금 여러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모든 것들이 자료화 돼서 좀 저희들한테 나눠줬으면 하는 그런 요망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영세

예, 관리국장께서 이 보충질문에 답변도 10분 후에 해 주세요.

그러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회의중지)

(15시 37분 회의계속)

● 의장 김영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중등교육국장님 아까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관리국장께서 보충질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중등교육국장 나세웅

(중등교육국장 발언대로 나옴)

중등교육국장 나세웅입니다.

보충질문에 있어서 김광수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5개 단체에 대한 통계를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대상학생의 총계는 국민학교는 4학년이상,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는 1·2·3학년 전원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해서 217,509명입니다.

거기에서 뭐냐하면 보이스카웃은 8,235명, 청소년연맹은 20,918명 그 다음에 해양소년단은 4,383명, 걸스카웃은 6,723명, 그 다음에 청소년적십자는 19,873명으로서 총계는 60,132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중에서 제일 학생들이 가장 제일 많이 모인 그러한 단체는 청소년 적십자고 그 다음에 청소년연맹, 그리고 보이스카웃 그 다음에 걸스카웃, 해양소년단 이러한 순으로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 남녀별 통계는

각 학교별, 저기 초·중·고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국민학교에 남녀별, 중학교에 남녀별, 고등학교 남녀별도 말씀드릴까요?

예, 그러면은 우선 국민학교에 남녀별로 말씀을 드리면.....

● 부의장 김광수

됐어요.

● 중등교육국장 나세웅

됐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회비, 학생들의 입단비는 어떻게 거출을 하느냐

청소년연맹은 3년에 1회만 회비를 내면 되고, 기타 4개 단체는 매년 회비를 징수하는데, 대개 5,000원서부터 6,000원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해서 답변말씀 올렸습니다.

● 부의장 김광수

그 자료쯤 이따 저 좀 주시죠.

● 중등교육국장 나세웅

예, 드리겠습니다.

● 의장 김영세

되셨죠?

(김광수 부의장 "예"하고 대답)

더 보충질의 없으시죠, 중등교육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관리국장님 아까 보충질문 답변 좀 해 주시죠.

● 관리국장 신재철

(관리국장 발언대로 나옴)

관리국장 신재철입니다.

권혁풍위원장님께서 보충질문하신데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공립화방안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교육부에서 지금 연구·검토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학교법인 측에서는 이 순응도가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조건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교육용 재산은 교육감에게 기부채납을 하고, 그 다음에 수익용 기본재산은 설립자에게 환원을 해주는 그러한 방향으로 사립학교법이 개정이 된다면 혹 몰라도 지금 현재로는 굉장히 그 순응도가 낮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 권혁풍 위원

지금 저 그 문제가 되고 있는 그 몇개 학교 거기에 대해서 뭐 이렇게 공립화 할려는 어떤 그 시도라고 할까 그 타진을 해보셨습니까?

● 관리국장 신재철

그런데 이것은 거기만 대상으로 우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 권혁풍 위원

일반적으로?

● 관리국장 신재철

에.

그래서 조심스럽게 이것을 타진을 해야지, 잘못하면 이게 와전될수도 있기 때문에 아직은 그렇게 공식적으로 비공식으로 타진은 아직 해보지는 못했습니다.

다음에 그 둘째번에 말씀하신 학급당 그 인원 연도별 감축계획은 그 계획에 214쪽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 권혁풍위원

214쪽에?

● 관리국장 신재철

에, 그 하단부에 65년도에 저희들

이 학급당 평균인원이 65명이었습니다.

작년애가 50명으로 줄었고, 2001년에 가면은 40명으로 매년 1명씩 줄여나가서 2001년에는 40명선으로 줄일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시범학교 그 건축계획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95년도까지 시범학교를 3개교를 세울 계획인데, 중도시 지역에 30학급 규모로 지금 두개교를 신설을 하고, 농촌지역은 1개교로 되겠습니다마는 12학급 규모로 할 계획입니다.

이건 전면 개축계획이 된 학교로 지금 농촌지역은 저희들이 선정을 했습니다마는, 시·군 교육청에서 신청이 들어올 경우 저희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지금 지정을 하고 있는데, 교육부에서 도자체로 30%를 부담을 하라고 하는 조건때문에 그쪽에서 저희에게 강력하게 "시범학교를 추진해라"고 요구는 못하고 있습니다.

일반 경비를 주면서 "30%는 자체로 부담을 해라"하니까 저희들이 사실은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95년도까지는 우선 신청이 들어온 세학교는 해보자해가지고 지금 세학교를 선정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교육부에서 아마 이 문제가 시범학교가 성공적으로 운영이 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방안이 다시 한번 내려오지 않을까, 봐서 그 때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 추이에 따라서 계획을 다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 권혁풍 위원

신청하는 학교를 우선순으로다....

● 관리국장 신재철

예, 예.

● 권혁풍 위원

새로 신축하는 학교보다도.

● 관리국장 신재철

예, 신축도 그렇고, 개축도 그렇고 시범학교를 우리가 해보겠다고 시·군 지역 교육장님이 신청을 해올 경우에 저희들이 그거를 여기서 선별을 해서 지정을 해줄 계획입니다.

● 권혁풍 위원

그럼 그 신청이 많지 않을까요?

● 관리국장 신재철

지금 현재는 신청들어온 데를 해줬다고 합니다.

● 권혁풍 위원

글쎄, 이제 그 도농간 격차 해소같은 문제 그런 차원은 뭐 우선 순위에 들어가지 않을까요?

● 관리국장 신재철

그래서 이제 전에 신청이 이제 들어온 거는 도시 지역은 대규모 학교가 됐기때문에 좀 어렵고, 앞으로 저희 방향은 중도시보다도 오히려 농촌 지역으로 그런 조건이 열악한 학교를 해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권혁풍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회위원 거수로 발언신청)

● 의장 김영세

예, 관리국장 소관입니까?

(이재회 위원 "예"하고 대답)

예.

● 이재회 위원

제가 두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당초 질의서를 냈어야 되는데, 관리국장이 내일 출타할 계획이시라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1세기를 향한 충북교육발전 계획이 나온 뒤에 정부에서 지금 교육의 대개혁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6·3·3·4 그 학제까지 개정을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만약 이렇게 되면 전반적인 계획이 수정이 될건데, 이번 그 발전계획을 보고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앞으로 농촌의 소규모 학교를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지금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면소재지에 하나씩은 국민학교가 앞으로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제천같은 경우에 보면 한수면에 월악이라든지 청풍이라든지 하는 학교는 앞으로 4,5년 뒤에는 오히려 입학생이 없어가지고 폐교될 그런 지금 교사가 돼있는데, 그래서 이 의무 교육이기때문에 규모의 크고 적고를 고사하고, 좌우간 면소재지 하나는 유지를 시켜야 될 거 아니냐하는 이런 어떤 그 보완책도 약간 가미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게 전연 지적이 안됐고, 앞으로 수정할 때

참고로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 교육계획에 제일 문제가 되는게 위장전입입니다. 지금.....

지금 도시근교에 있는 면소재지 중학교가 그 학생이 유지가 안되는 게 전부 위장전입으로 도시로 나오기 때문인데, 앞으로 충북 그 농촌의 그 교육발전을 위해서는 위장전입의 근절책도 어딘가는 한번 삽입을 해 주는 것이 좋지않겠는가,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 관리국장 신재철

예, 지금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 농촌 소규모학교 이 문제는 사실 저희로서도 굉장한 그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1개면에 1개 학교도 지금 없어져야 할 형편으로 지금 놓여있는데가 지금 예건이 되고 있는 곳이 여러곳이 있는데,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참 지금 지적하신대로 학교를 없애자니 참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대단히 가변적이기 때문에 여기에 그 장기계획에 사실은 그래서 집어넣질 못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추후로라도 계속 연구를 해가지고 대책을 수립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장 전입 문제는 이게 사실 법적으로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할텐데, 지금 요건에 맞게 위장전입을 해가지고 와서 그 학교에 취학을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저 서울같은데서는 위장 전입 문제로 여러 그 행정적 조치를 취한 적도 옛날에 있었습니다마는 이 문제도 행정청 저쪽 전입문제는 또 저 내무행정계통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문제는 더 좀 연구를 해가지고 상호 관계되는 기관하고 연구를 좀 더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이재희 위원

참고적으로 제가 한 말씀 더 드리

겠습니다.

이 위장 전입 한것이 이제 학부형들 그 원에 의해서 한것도 있고, 또 하나는 교사의 불신으로 인한 위장전입도 또 있습니다.

아주 실례를 든다면 제천 청풍중·고등학교는 한때 그 전교조문제로 아주 시끄러웠는데, 학부형들이 기피를 한 겁니다.

하다 못해 수산중학교라도 보내자면 청풍국민학교에서 수산국민학교로 전출을 해야 되겠다, 제 추측으로는 이해가 가는데 그래서 이러한 교사들의 어떤 불신으로 인한 이런 위장전입도 생기니까 그때 그 도농격차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농촌의 우수교사를 배치를 하면 이 위장전입도 좀 막는 그 근절책이 되니까, 그런것도 앞으로 참고로 해서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관리국장 신재철

예, 제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그 문제는 관계되는 분에게 제가 충분히 말씀을 드려가지고, 저희하고 연구를 좀 하겠습니다.

● 의장 김영세

예, 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그러면 초등교육국 소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초등교육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초등교육국장 홍영창

(초등교육국장 발언대로 나옴)

초등교육국장 홍영창입니다.

박병해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첫번째 "교육과정 편수실 설치 가능여부와 근거는" 여기에 대한 답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설치 가능여부입니다.

교육과정 편수실의 도교육청 설치는 현재로서는 불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근거입니다.

첫번째, 지방교육행정기관직제 도교육청하부조직 제3조에 의거 편수실 설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두번째, 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교육부 하부조직 제4조에 의거 교육부에만 설치 가능하도록 돼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6차 교육과정개편에 따른, 그대로 있을 수가 없으니까,

저희 도에서 대책을 세운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는 전국 교육감님 일동이 교육부장관에게 건의한 내용입니다.

각 시·도에 편수업무를 담당할 부서를 신설해 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두번째는 아까도 조례나, 여러가지 말씀이 계셨는데, 특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마는 지금 대통령령훈령 제13,282호 91년 2월1일자입니다.

교육과정 심의 규정이 이미 개정 공포가 됐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각 시·도는 교육과정 심의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약삭빠르게 만든 도는 편하도록 규칙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전국 담당자회의에서 규칙으로 하는 것은 곤란하다, 이래서 전국적으로 조례로 제정 시행하고자 추진하고 있음을 아울러 말씀을 올립니다.

두번째는 교과별 지도용 교구·교재 확충예산을 계상하지 않은 이유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과별 지도용 교구·교재 확충예산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하는 애김니다.

일반교과에 지도용 교구·교재 확충예산을 각급학교 운영비중 교육과정 운영비속에 포함시켰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을 확보하지 않기 때문에 예산상에 별도로 나타나 있지 않음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수분야, 특수분야 교구·교재 확충예산 확보 계획은 그 발전 계획 106페이지, 또 117페이지를 보면 과학교구 지원계획이 있고, 또 소프트웨어 보급 계획이 서있음을 아울러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들은 질 높은 수업을 할 수 있도록 교과별 교사 지도용 교구·교재 확충예산을 위해서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많은 예산이 학교운영비속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교과별 지도용 교구·교재의 확충예산을 저희들 지

난 5월달에 별도 결심을 받아서 일선 교육청에 지원해 준 사례가 있습니다

지역교육청별로 1,000만원 그래서 총예산 1,812만5,000원을 지원한 바가 있어서 말씀을 올립니다.

응? 1억.....

(집행석부에서 예산액을 잘못 말하였다고 지적함)

아 1억812만5,000원입니다.

다음에는 권혁풍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데에 대한 답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교원 국외연수에 대한 말씀인데, 이 직종별 불균형, 그러니까 "초등교원, 중등교원, 일반직간에 불균형이 있지 않느냐, 교원이 적고 일반직이 상대적으로 많은게 아니냐"

하는 내용으로 제가 받아 들였습니다. 마는 현재 93년도를 보면은 초등교원 4,487명중에 45명 1%에 해당이 됩니다.

중등 6,456명중 78명 1.2%, 일반직 2,921명중 30명해서 1%입니다.

그래서 향후 10년간 계획속에 1%를 유지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등·중등·일반적 국
외 연수기회는 대개 1% 수준으로 이
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교원 초등교원과 중등교
원은 매년 조금씩 상향조정을 했고,
일반직은 매년 30명씩 증원하지 않았
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질문하신 "열린
교육과 지역사회교육의 차이는 무엇
인가"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열린교육과 지역사회교육
의 차이점입니다.

열린 교육은 학습의 개별화를 목표
로 하는 학습지도의 한 접근방법입니
다.

지역사회교육은 학교와 지역사회의
교육적 기능이 향후 협력을 목표로
하는 학교 운영의 한 접근방법이라고
하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열린교육은 가정과 사회의
인적, 물적자원을 활용하고 학부형의
협조와 참여를 통하여 이루어지므로
지역사회교육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돼서 열린

교육의 성과를 거양하기 위해서는 지
역사회교육이 활성화되어야 하기 때
문에 열린교육 성과로 해서 지역사회
교육도 아울러서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세번째 질문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
습니다.

"중치교사제도와 교과전담제의 분
리확대계획은" 이런 말씀인데, 거기
에 대한 답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치교사란 무엇이고, 교과전
담교사는 뭔가 저 자신도 간혹 혼동
을 해서 사용을 합니다마는 그것이
구별돼있기 때문에 말씀을 올리겠습
니다.

첫째 1992년 3월8일자로 교육법시
행령37조 제2항이 개정이 됐습니다.

이 교육법시행령 37조 제2항에 과
거에는 국민학교에 학급담임외에 중
치로 17학급에서 6학급이 초과될 때
마다 한명씩을 둔다고하는 중치교사
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92년 3월8일자 동법 개정예
따라서 중치교사라고 하는 용어는 법
률상에 없어지고 음악, 미술, 체육,
실과, 과학등 교과전담교사로 명칭

용어를 바꿨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도내 교과 전담 교사는 얼마나 있는가하면 동법 규정에 의해서 작년도에는 218명이었습니다마는 금년 현재는 294명의 교과 전담교사가 있습니다.

전원 배치되었습니다.

그러나 교과전담교사의 확대문제와 대규모학교의 보결 수업을 소위 전담할 수 있는 소위 증치교사입니다.

이것을 확대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교육부에 수차 건의했고, 현재도 개정 추진중에 있습니다.

일전에 교육신문에 보도된 대로 동법은 개정된것이 국민학교 4학년 이상 4학급마다 한명씩을 더 줘서 교과 전담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이것을 그렇게 했을 경우 소규모 본도의 174개 학교가 6클래스 이하입니다.

여기는 혜택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법을 개정을 해서 국민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6학급 최소 6학급마다 한명씩을 더 줘서 교과 전담을 하고, 또 일부는 보결수업을

담당하는 그런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음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

● 의장 김영세

예, 저 초등교육국 소관 보충질의 말씀하시죠, 하실 분.....

예, 이상일위원.....

(이상일 위원이 본인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아직 없었다고 말함)

● 권혁풍위원

제가.....

● 의장 김영세

예, 가만있어보세요.

● 초등교육국장 홍영창

답변없는 내용은 그.....

● 의장 김영세

기감실 하나 남았는데.....

● 초등교육국장 홍영창

그 발전계획에 전반적인 것에 있어서 기감실에서 저희들 3국에서 답변 말씀 올린것 보다도 훨씬 많은 답변이 나올겁니다.

그래서 간혹 빠진게 있으면 기감실장님 답변말씀이 끝난 다음에 다시 질문을 해주시면 답변말씀을 올리겠

습니다.

● 의장 김영세

이 물론 기감실이 전체 기획업무에 입안기관이지만 이상일위원이 질문한 근본정신문제는 다각도로 지금 반영이 돼야 하는데 전수가, 지금, 기감실로만 미루고, 안나와요.

그래서 이게 지금 질의가 나온건데 내일 그 충분히 대비해서 답변해주세요, 기감실소관 내일 답변하십시오 거니까.....

예, 그럼 초등교육국소관 말씀하세요.

(권혁풍위원 거수로 발언신청)

예, 권위원.....

● 권혁풍위원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국외연수관계인데요, 제가 잘못알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교원 전문성 할 것 같으면 어디까지나 교원을 그 전문성을 신장시키는게 그 목적이라고 보는데, 물론 일반직도 광범한 교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1%를 그저 참 평균적으로 이렇게 잡으신것 같은데 교원의 전문성 신장에 주안점

을 두신다면 어디까지나, 1%, 1% 뭐 이렇게 %수를 따질게 아니라, 그 직무수행 기능상 어디까지나 교원을 우선해서 초등학교 아니면 중등학교 이쪽으로 좀 치중을 해서 국외연수를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초등교육국장 홍영창

예, 저도 동감입니다.

이 교원연수나 해외연수는 저희들 자체예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부 교부금, 교육부예산에 의해서 전국적인 계획에 의해서 매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교육부 계획에 의하면 "교원의 1%정도를 선발해서 연수를 실시한다." 이렇게 돼있어서 그것을 상회한다라고 하면 본도예산에서 별도책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음을 말씀을 올립니다.

● 권혁풍위원

그러면 일반직도 교원의 전문성에 인제 해당이 된다는 말씀이죠?

● 초등교육국장 홍영창

교원은 아니죠.

● 권혁풍위원

제가 질문한 건 그겁니다.

교원의 전문성 신장.....

● 초등교육국장 홍영창

아, 글썄 교원은 1% 이래됐고, 거기에 따라서 인제 교육에 관계하시는 일반직 공무원도 준하는 거죠.

● 권혁풍위원

그게 좀 애매합니다.

어디까지나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제가 여쭙았는데, 거기에 "일반적이 1%다, 똑같은 차원에서 한다." 그리고 직무연수를 보니까 일반직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초·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은 상당한 그 직무연수를 하는데, 그 이유는 뭐며,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가는 것이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다면 어디까지나 초·중·고등학교 교사를 주축으로 해서 거기에서 전문성을 올려줘야 그게 본 취지에 맞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질문을 재차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초등교육국장 홍영창

그 발전계획 200페이지에 나와 있는 직무연수 계획, 거기에 나와있죠.

그거 중등있고, 앞에는 초등이 있고 중등이 있습니다.

그 내용, 직무연수에 관한 것은 초등교원과 중등교원을 거기 통제치로 놓은 것 같습니다.

● 권혁풍위원

예, 그렇습니다.

● 초등교육국장 홍영창

통제치로 왔는데 저희들이 거기서 현재 문제점이 있습니다.

교장은 대개 직무연수를 주기적으로 하고, 그래서 현재 301명에 60명 해서 19.9%, 또 교감은 직무연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신설한 겁니다.

요번에 교감을 직무연수를 신설해서 이 교감들이 직무능률이 향상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차원에서 단재교육원에서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80명을 해서 24.6%가 되고 또 하나 인제 문제는 주임교사 연수

가 없어요.

저기도 주임교사 연수는 1,048명중에 20명, 1.9%입니다.

그러니까 교장은 중앙에서 교감은 저희들이 그나마도 저희들이 인제 신설해서 하는데, 현재 주임교사 연수가 적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계획을 해서 다음에 예산에 반영 실시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권혁풍위원

그래서 거듭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무슨 해외연수 시키는 것이 무슨 위로여행도 아닐테고, 어떤 그 복지수단도 아닐테고, 어디까지나 교육을 위한 해외연수라고 봅니다.

그렇다면은 일반직끼리한 해외연수는 별도의 차원에서 계획을 세우시고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서 따로 별도로 좀 분리해서 이걸 세우셔서 정말로 교원의 전문성을 교육적 차원에서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하는 그런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 의장 김영세

예, 또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 이상일 위원

제가 아까 그.....

(마이크 상태 불량)

이 마이크가 안나옵니까?

● 의장 김영세

여기 마이크 보세요, 이상일위원..

● 이상일 위원

아, (마이크 상태 확인후)

제가 질문한 건 뛰 기감실에서 답변을 해주신다고 그러니까 기다리겠습니다마는 요거 한가지는 초등국장님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제가 아까 그 19세기식 칠판 백묵에 의한 주입식교육 해소방안, 우리가 지금 이 열린교육이 학습지도 효과로서 상당히 좋은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것이 증명이 되고 있고, 그렇다면 이것을 좀 빨리 각급학교에 확산을 시켰으면 좋겠는데, 이 주입식교육 해소방안에 대한 국장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초등교육국장 홍영창

예, 답변말씀드리겠습니다.

열린교육을 저희들이 작년도에 연수를 해서 일부 받아들여서 금년에는 시범학교로 지정을 했습니다.

아 그래서 교육여건이 개선이 돼야 되고, 또 여러가지 교재가 거기에 따라야 되고,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그 나름으로 열심히 하고 있는 학교가 중원군의 오석국민학교, 대소원국민학교, 또 음성으로 오면 하당, 삼성, 또 영동에 가며는 화곡국민학교가 대표적인 선두주자 학교들입니다.

이 학교에서 열심히하고 그러면 가을에 발표회를 갖게 됩니다.

이래서 전 도내 여건이 갖춰지는 대로 실정에 맞도록 확산할 계획으로 있고, 전문직들 연찬은 1차 마친 바 있습니다.

작년에 제천교육청에서 주관해서 실시도 했고, 저희들도 실시를 하고 해서 확산시키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구태의연하게 지금도 칠판과 백목만 가지고 수업하는 사례, 우리는 칠판의 벽을 무너뜨리자고 외친 때가 벌써 이미 오래됐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사라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떤 측면에서 강조를 하느냐하면 컴퓨터 보조학습자료입니다.

CAI, 그 컴퓨터 보조학습자료를 확대시킴으로 해서 앞으로 칠판을 덜 사용하고 백목을 사용하는 일이 줄어드는 그런 쪽으로 전환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앞으로 2천년대 가면 거의 칠판에다 판서하는 예는 아주 적어질 것 같습니다.

● 이상일 위원

하여튼 뭐 다른 것도 중요하겠지만 새로운 학습방법의 지도, 이런 것이 또 개발이 되면 어느 것보다도 좀 중점이 돼서 빨리 그 열린 교육이든지 새로운 학습지도가 우리 교단에 정착되도록 다른 부분보다 좀 더 많은 배려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초등교육국장 홍영장

예, 감사합니다.

● 의장 김영세

예, 또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박병해위원 거수로 발언신청)

예, 박병해 위원 질의하시죠.

● 박병해 위원

아까 그 1억800만원을 5월달에 벌써 예산배시를 했다고 들었는데, 이거는 그러면 초·중·고 각각 학급당으로 나뉘나요? 어떻게.....

● 초등교육국장 홍영창

아닙니다.

예산이 한정돼있고, 저희 초등장학과에서 기안을 해서 실시한 내용입니다. 마는 일선학교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우리가 국민학교중에서 지역교육청별 일정한 액수를 정해준 거죠, 거기 말하자면 1,000만원 정도, 정도범위 내에서 학교경영을 잘하고, 또 그 중에서 여러가지 교구 이런 것이 좀 부족하다, 이런 학교를 사기 진작차원에서 우선 지원했던 겁니다.

● 박병해 위원

그 초등만.....

● 초등교육국장 홍영창

아닙니다.

중학교, 국민학교.....

● 박병해 위원

아주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

다.

그런데 이 각 교과별 교재·교구를 제대로 확충을 안한다고 하면 현재 교사들의 타성이라든가, 교장 선생님들의 그런데에 아주 등한시하는 이런 풍조를 없애고, 그야말로 각 교과가 제대로 교사들 스스로가 교과별 지도가 정착되게 하게하는 방법은 곧 각 교과별 교재·교구 확충하는데 있다고 난 이래 봅니다.

이것을 해놓지 않고 "맨손 수업하지 마라, 질높은 수업해라." 뭐 이거 암만 애길해야 그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해놓고 교장도 그렇게 애길 할 수가 있고, 현재 교장선생님들이 각 학교에 가서 이제 들어보면 그런데 대한 얘기를 하면 이게 꼭 교육적으로 좋다고 알면서도 할 수가 없는 입장이에요, 요새.

그렇다고 보면 거꾸로 우리가 이런 걸 확충을 해 줘 가면서 이래서 꼭 "실력향상을 해라.", 또 아까 도농간의 뭐 격차 이런것을 얘기를 했지만은 지금 현재 배시가 된 것은 꽤 큰

학교에서 충실하게 한 학교, 또 충실하게 한 학교중에서 교재·교구가 좀 미달된 이런 학교를 배시켰다, 이것도 좋은 얘기지만은 점점 도농간의 격차는 커집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게.

그래서 도농간의 격차를 없애려면 이런 것부터 저 시골학교서부터 이게 충실하게 이렇게 도와줄 때 이루어진다고 이래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학교 운영비에 다 예산을 배시켰으니 거기서 합니다." 하는 얘기는 이거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학급당 경비니 뭐 학교경비 이런거 대줘야 교장선생님이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 할일이 자기 나름대로 있는데, 현재까진 그렇습니다.

거기다 다 써버리고 교재·교구는 선생님들한테 "이걸 살테냐, 어쩔테냐" 희망조사 자체도 안해요.

이거를 충분히 좀 조사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 장기계획에는 꼭 이것이 구체화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게 그냥 말로만 할게 아니고,

뭐 이게 "운영비에 다 들어갔습니다" 이거 가지고는 아무리 애길해도 그건 불가능한 애깁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강조말씀을 드립니다.

● 초등교육국장 홍영창

답변말씀을 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 박병해 위원

답변, 예

● 의장 김영세

그냥 부탁의 말씀이죠?

● 박병해 위원

예.

● 의장 김영세

예, 또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김사수위원 거수로 발언신청)

예, 김사수위원님

● 김사수 위원

지금 그 교원 국외연수에 대해서 좀 여쭙보겠는데, 교원하고 일반직하고 이렇게 인재 표에 나와 있는데 그 예산이 교원들이 가는 그 예산에서 일반직도 가는 겁니까?

● 초등교육국장 홍영창

아, 다르죠.

● 김사수 위원

그건 별도로, 별도로 비용들어서
가는 거지?

● 초등교육국장 홍영창

예, 예.

별로로 나와있죠.

● 김사수 위원

교원연수를 가는 그 예산을 일반적
이 들어가서 먹는 건 아니죠?

● 초등교육국장 홍영창

아니죠.

● 김사수 위원

그렇다면 얘기할 필요없죠.

● 초등교육국장 홍영창

예, 예.

●(좌석에서) 관리국장 신재철

그게 안 들어갈게 들어갔어요.

교직원으로하면 모를까, 잘못들어
간겁니다.

● 김사수 위원

예, 글썄요.

글썄 이게 잘못됐어요.

그래서.....

●(좌석에서) 관리국장 신재철

그래서 그거 말씀은 일반적이 안들

어갈게 들어가가지고.....

● 초등교육국장 홍영창

그래서 아마 그 편집에서 그.....

● 김사수 위원

그래서 그걸 확실히 물어보는 거에
요.

●(좌석에서) 관리국장 신재철

편집에서 그게 아마 잘못들어갔어
요.

● 초등교육국장 홍영창

다른 항목에는 안들어갔는데 어찌
거기만 들어갔.....

● 김사수 위원

이 일반적이 권위원님은 "교원들
이 가는 예산에서 일반적이 들어간다
"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신거다, 이
그게 아니죠.

● 권혁풍위원

그게 계획을 보면은 엄연히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 김사수 위원

글썄, 이게 잘못된게요.

● 초등교육국장 홍영창

제목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건
좀 잘못 편집이 된거 같아요.

● 김사수 위원

그야 뭐, 일반적도 어떻게 됐든 해외연수해서 견문을 넓히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 초등교육국장 홍영창

아, 그렇죠, 예.

● 김사수 위원

앞으로 별도 예산을 세워서라도 많은 그런 그 기회를 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의장 김영세

예, 그 문제는 명확히 구분해서 기감실에서 다시 그 조정을 해서 삽입하세요.

또 다른 보충질의.....

● 권혁풍 위원

그게 예산이 그러면 저 똑같이 1%로 하라는 그런 준칙이 내려왔습니까

● 초등교육국장 홍영창

교원은 있습니다.

● 권혁풍 위원

교원, 일반적도 1%, 뭐 아까 말씀을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 초등교육국장 홍영창

예.

● 권혁풍 위원

그러면 그 목적하고 이렇게 딱 내려옵니까?

● 초등교육국장 홍영창

아니 그러니까 돈을 저희 도예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부에서 교부금으로 예산을 줍니다.

금년도 같으면 경비에서 15% 이렇게 감, 자담하도록 돼있죠.

● 권혁풍위원

그래서 교원속에 일반적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게 잘못된거죠.

● 의장 김영세

예, 보충질의 더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늘 답변하신 여러분들 대단히 수고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것으로 질문·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이것으로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회 충청북도 교육위원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

(16시 17분 산회)

○ 출석위원수 : 11명

의장 김영세, 부의장 김광수, 위원 이상일, 이재희, 홍신희, 김응복, 이근수, 김사수, 박병해, 권혁풍, 장충호.

○ 출석공무원 : 17명

부교육감 박동기, 초등교육국장 홍영창, 중등교육국장 나세웅, 관리국장 신재철, 공보담당관 정금옥, 기획감사담당관 신태희, 행정관리담당관 이기수, 초등장학과장 채선병, 초등교직과장 김재성, 중등장학과장 송대헌, 중등교직과장 임순재, 과학기술과장 정기우, 사회교육체육과장 정철진, 총무과장 고일영, 행정과장 이상찬, 재무과장 정헌동, 시설과장 박성근.

○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증개정조례안 : 별첨 2.

○ '9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정수관리대상물품처분안 : 별첨 3.

○ '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 별첨 4.

본 회 의 회 의 록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의사국

1993년 6월 19일 (토요일) 10시 30분

의 사 일 정 (제2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1.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

부 의 된 안 건

1.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

(10시 30분 개의)

● 의장 김영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과장 이영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은 제2차 본회의에 이어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답변을 계속하시

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집행기관에서는 부교육감님, 중등국장님, 관리국장님, 행정관리담당관이 도의회 최종일에 참석하여 이 자리에 참석치를 못하였습니다.

아울러 홍신회위원님께서 공무로 불참계를 제출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1.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

(10시 33분)

● 의장 김영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제2차 본회의에 이어서 집행기관으로부터 계속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청 관계관계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옴)

● 기획감사담당관 선택회

기획감사담당관 선택회입니다.

질문의 답변에 앞서 우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교육위원님의 고견을 미리 반영치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21세기를 향한 충북교육발전계획은 장기교육 발전계획이므로 당면한 우리 교육의 핵심과제 부분에 대하여 방향과 비전을 제시하고 이정표적 역할을 하도록 함이 교육발전을 가속화하는 길임을 교육감님께서 권두언에 밝히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 계획은 국가발전의 가속화와 국가시책의 변화, 그리고 교육재정 투자의 증가에 따라 많은 수정이 요구되고 제시된 127개 도표의

수치도 또한 변화할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보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사업 부서별로 실시계획에 세부적으로 반영하여 추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답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상일 교육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를 말씀드리며는 "우리 고유 국민정신인 선비정신, 그리고 은근과 끈기를 강조하는 대목을 보완할 의향은 없는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북교육발전계획에서 제시한 인간상은 정부가 제6차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인간상으로 규정한 "건강한 사람, 자주적인 사람, 창의적인 사람, 도덕적인 사람"과 대통령 교육정책자문회의에서 제시한 "건강한 한국인" 등 국가의 이념목표 덕목을 종합적으로 서술한 것입니다.

또한 장기적 안목으로 볼 때 교육목표는 국가의 목표와 우리 도의 목표가 일치되어야 된다고 보아 국가의 목표와 일치시킨 것입니다.

충북교육발전계획에서는 선비정신이 명시되지 않았지만 선비정신의 요체인 청렴사상, 또한 물질적 부를 탐하지 않고 의로움을 중히 여기며, 공을 앞세우고 사를 뒤로 하는 곧고 깨끗한 정신은 교육목표를 실천하는 다섯가지 덕목 중 인간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사람 및 공동체의식을 갖춘 자주적인 사람과 관련하여 그 근본사상을 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근과 끈기는 창의적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창의적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은 자신이 선택한 과업에 두려움 없이 정진하며 일단 가치있다고 판단한 과업은 지칠줄 모르는 끈질긴 노력을 투입하는 근면성을 보이기 때문에 은근과 끈기를 기르는 목표와 맥을 같이 한다고 보겠습니다.

두번째 질문인 "부정과 불의에 타협하지 않는 정의로운 사람 육성을 강조하는 부분이 삽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정과 불의에 타협하지 않는 정의로운 사람 육성을 강조하는 부분은 33쪽에 명시된 공동체의식을 갖춘 "자주적인 사람"항에 포함되어 있는데 책임과 의무, 정의와 부정, 질서와 혼란의 판단은 준법정신으로 무장된 자주적인 사람이라야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의로움은 내가 떳떳한데서 나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세번째 질문인 "학교급별 유치원·초·중등으로 현안 문제를 진단하고 미래지향적 방향을 제시할 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학교급별계획 유치원·초·중등계획은 세부계획의 개념으로, 중기계획으로 수립함이 옳다고 사료됩니다.

교육과정 계획은 초·중등교육과정 편수를 담당할 쪽에서 구체적으로 수립 추진을 할 것이며, 시설 설비는 교육 재정에 따른 중기계획에 의거 추진되어 왔으며, 과대 학교 분리 또한 국가시책인 과대 학교 개념은 '93년도 최대 학급은 54학급에 급당 48

명 기준으로 해서 2,592명 이상이고, '96년은 교당 최대 50학급 급당 45명 기준으로 해서 2,250명, 2001년은 최대 45학급, 급당 40명 1,800명 이상에 따라 215쪽에 명시된 국·중교 신설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교과전담제 확대방안은 정부의 교사 정원이 확보되는 대로 시행이 가능하도록 3장 2절 87쪽에 연수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칠판, 백묵에 의한 주입식 교육의 해소는 제3세대 교수 매체인 영상매체와 컴퓨터 등을 통해 확대해 나가면 해소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김응복위원님이 질문하신 교사의 자질향상과 사기양양을 위한 획기적인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사의 자질문제는 국가의 교사 양성시책에 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현재 일선에 재직하고 있는 교사들의 연수방향과 방법, 연찬계획은 제 4장 1절 189쪽부터 207쪽까지 18쪽에 걸쳐 서술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학교단위 자율적인 연찬계

획에 의거 스스로 연수를 강화할 방안으로 소프트웨어를 개발 제공토록 권장하겠습니다.

전체 숫자를 말씀드리면 자격, 일반, 직무, 특별, 국외 연찬회 등 총이 계획 기간동안에 약 3만 500명이 연수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박병해 교육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인 교원의 자율성, 탐구능력, 도덕성의 제시가 미흡한 사유를 말씀드리면 교원의 자질향상과 사기양양에 관한 사항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으며, 교원의 자율성, 탐구능력, 도덕성의 구체적인 내용은 연수내용과 방법을 혁신하는 과정에서 다루어 지리라고 사료됩니다.

두번째 질문인 모든 교직자의 의식을 전환하기 위한 실천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인들의 의식전환의 최선의 방법은 언어적 이해와 행동실천으로 습관화 하는 방안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학교장 책무성 강조와 의식전환 교육, 학교 현장에서 교사교육

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매월 학교별로 의식전환 과제를 선택하여 중점실천토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점진적으로 의식전환을 하고자 합니다.

세번째 질문인 교육현장의 교육비를 적절하기 위한 실천계획이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장에서 교육공무원의 의식전환 교육을 지속하며, 감사 우수사례 및 부정·비리 사례 등 감사편람을 발간하여 같은 내용의 부정·비리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고, 시대적인 변혁과 개혁의 분위기가 교육제도 널리 확산되도록 보완에 심혈을 기울여 가겠습니다.

네번째 질문인 공동체 의식, 절제 교육중 충효교육계획의 강조가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충효교육, 즉 구교육과정에서 충성교육의 언어개념을 "준법정신이 투철하고 민주시민으로서의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면 애국하는 마음은 길러진다고 봐 53쪽부터 58쪽까지 서술했으며, 효행교육은 전통생활교육을 강

화하는 방안으로 61쪽부터 62쪽에 생활관을 활용하여 수련하도록 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세부계획은 시행과정에서 확대 시행되리라고 사료됩니다.

다섯번째로 열린 교육, 특별활동, 영재교육 담당자 연수계획은 있으나 부진학생의 보충교육계획이 없는 사유에 대해서 질문, 답변드리겠습니다.

열린 교육이란 학생들의 능력의 정도에 맞는 교육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지도하는 교육방법으로 앞으로 열린 교육방법이 정착되면 보충교육계획은 따로 세울 필요가 없다고 보며, 또 보충교육계획의 수립은 과제분류상 학교계획이나 학교경영 차원에서 분석되고 지도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계획에서는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여섯번째 질문인 교육행정 편람과 장학사 편람을 합본 작성할 의향은 없는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편람은 금회가 초판으로 앞으로 4 - 5년을 주기로 발간될 것이며, 장학우수 사례는 지금도 매년 전·후

반기 편찬하고 있는 사항이고, 교육 행정편람은 각 지역 교육청별로 발간 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발간에도 역점을 두지만 가까운데 두고 적극 활용하도록 책표지에 비치 장소와 인수인계, 그리고 활용방안을 표기 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권혁풍, 이상일, 박병해 세분 교육위원님께서 공동으로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수립을 위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 토론회를 거쳤는지요, 이후라도 각계 여론수렴을 통해 보완할 계획은 없는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나 토론회를 갖지 못했습니다.

장기발전 계획은 국가나 지방을 막론하고 그 특성상 많은 수정과 발전적 연구를 전제로 하고 있으며, 교육발전 계획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많은 기본자료를 공청회나 토론회 참석자들에게 제공하고 숙지토록 해야하는 어려움 등으로 이

를 추진치 못했던 것이며, 다만 교육위원들께서는 세 차례에 걸쳐 내용의 개괄을 보고드렸던 것입니다.

시·군 행정기관 및 시·군의회의원들께 모두 보여 드렸기 때문에 앞으로 수정건의나 발전적 의견이 있을 때는 항상 수용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권혁풍 교육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인 국가차원의 발전계획과 연계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북교육발전계획의 제3장은 제6차 교육과정을 중점적으로 탐색하여 교육내용과 방법을 선진화하는 것을 토대로 하였으며, 제7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내용에 준하여 모든 재정계획을 수립하였고, 특히 충청북도 장기발전계획을 고찰하여 장기발전계획의 토대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정의 국가 의존도가 88%나 되는 현재 입장에서는 중·단기계획의 수립으로 국가시책에 따라 수정추진 해야 할 것으로 압니다.

두번째 질문인 교육과정 지역화 내용과 방법에 있어서, 첫번째, 구체적 내용이 결핍되었다고 보는데 이에 관한 대안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거듭되는 말씀입니다만 장기발전계획은 그 특성상 발전방향과 내용을 지표적으로 개괄하는 방향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추진과정에서 실시계획인 중·단기계획을 수립하여 세부적으로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지역화 교육과정의 구성과 그 운영지침은 초·중등장학과를 중심으로 교육과정의 구성과 그 운영지침에 따라 세부적으로 전개되기 때문에 구체적 내용은 서술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열린교육은 학생의 개인차를 중요시 하고 교사의 노력이 필요하며, 학년 개방, 학교 개방, 교실 개방, 과목 개방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열린교육은 설명하신대로 학생의 개인차를 중시하는 교육방법으로 1992

년 현재 통계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2개 사립학교, 1개 공립학교가 시도하고 있고, 서울, 경기, 경북에서 열린교육 시범학교를 지정운영하는 실정으로, 우리 도에서는 즐거운 교실운동을 발전적으로 운영하면서 금년에 국민학교 1개교를 시범지정하여 열린교육에 접근하는 실정입니다.

열린교육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시범학교에서는 교육과정 개발연구, 교실의 구조적 개선 등의 과제를 우리향토의 체제에 맞도록 모델을 개발해갈 계획입니다.

셋째 질문인 사회교육의 중요성이 증가하는 추세임에도 이에 대한 목표방향, 조직, 요원양성, 사업계획, 사회체육계획, 주민제도 교육 등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미흡함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대로 사회교육분야의 내용도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였습니다.

현행 교육부의 사회교육지원 예산이 기준년도인 1996년도의 경우 교

육예산의 0.16%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교육예산이 G.N.P의 5%가 확보되어 이 분야의 예산이 증액되고 국가적 지원체제가 강화되면 사회교육 정보센터의 활성화와 사회교육 전문성제고 및 학교, 가정, 사회의 연계에 관한 세부추진이 보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네번째로 변화추이의 정확한 근거와 이에 대한 신빙성을 질문하셨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생수 및 학급수의 변화추이에 대한 산출근거는 유치원의 경우 '97년도까지는 '92년도 말을 기준으로 5세까지 실제 주민등록에 등재된 수를 기초로 최근 3개년간 취원률을 적용하여 취원 아동수를 산정하였고, '98년도 이후는 평균 출산률과 최근 3개년의 취원률을 적용하여 산출한 겁니다.

국민학교는 연도별 적령 아동수 유치원 취원대상 아동수 산출근거에 기준을 두어서 최근 3개년 간의 평균 입학 감소율과 평균 진급률을 적용하여 학생수를 산정하였고, 학급수는

정부의 학생수용계획 지침에 의한 연도별 급당수를 적용하여 산출하였습니다.

중·고등학교의 학생수는 연도별 시·군별 하급학교 졸업 예정자 수에 최근 3개년간 평균 진학률과 평균 진급률을 적용하여 산정하였으며, 학급수는 정부의 학생수용계획 지침에 의한 연도별 급당률을 적용하여 산출하였습니다.

특수학교 과정별은 유·초·중·고로 완성 연도까지 매년마다 인가학급 및 학생정원, 유치원은 급당 10명, 초·중·고는 급당 15명이 되겠습니다.

이를 기준하는 것이기에 신빙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섯번째 질문인 고교 및 대학입시 개혁은 대단히 중요한 계획임에도 이에 대한 계획이 반영되어 있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법상 고교 및 대학입시 개혁은 국가차원에서 논의 돼야 할 것이며, 도교육청 차원에서는 법이 개정되고, 고입과 대입에 대한 권한이 교육감에게 이양된 뒤에 계획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섯번째 질문인 이책의 구상, 계획, 실무 집필의 과정에서 지방교육정책의 수립은 어느 과정에서 취급되고 있는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정책의 과제의 수립은 구상단계에서 교육발전 기본 구상, 대통령 정책자문회의에서 내놓은 제안입니다.

2000년대를 향한 한국인상, 21세기 사회, 그리고 교육, 서울, 충남, 전북, 대전교육청 발행 교육발전계획 '91년 일본의 교육정책 등 8권을 과제분석을 하여 이 200여 과제를 추출하고 제5장으로 구성할 것을 협의하였으며, 이를 철저히 분석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정책과제의 추출은 각 과별 토의, 기획소위원회를 3차에 걸쳐 했고, 실무소위원회에서 초안을 심의하였고, 우리도의 실정을 감안해 하위 과제를 선정하였으며, 이에 터하여 목차를 만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캠퍼스 타운 설

치계획과 본도 교육발전계획 연계 가능성을 질문하셨는데, 현재로서는 고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 계획이 충북지역에 확정되면 중기계획으로 가능하리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영세

예, 기획감사실장 답변하느라 옥보셨는데, 이제 기획감사실 소관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일위원 거수로 발언 신청)

예, 이상일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이상일 위원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21세기를 향한 그 충북교육발전 계획이 나오기까지는 아까도 얘기하신대로 주민여론 수렴과정을 못 거쳤다고 얘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교육자치라고 하는 것 자체는 주민자치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교육전문가 몇이서

모여서 어떤 안을 성안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결국 우리 자녀들을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교육해 달라고 하는 주민들의 요구를 우리가 수렴해야 됩니다.

그런면에서 물론 국가의 교육목표를 바탕으로 우리 지역의 교육목표가 설정돼야 하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마는 여기에서 아까 내가 얘기한 국민정신이라고 하는 것, 이게 좀더 강조돼야 하지 않느냐, 지난번 11일날 서울에서 세미나가 있을 때, 한완상 부총리가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느 가정에서 쌍둥이 아이를 낳았는데, 가정 형편상 한 아이는 도쿄에서 키우고 하나는 서울에서 키웠답니다.

몇 년후에 두아이를 합쳐서 같이 식사를 하는데 일본에서 교육을 받은 아이는 절도있고, 참으로 예의바르고 올바른 교육을 했는데, 한국에서 큰 아이는 밥을 먹다가 왔다 갔다 했다가 텔레비를 끄다가 별 난잡스러운 일을 다하더라 이런 얘기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창의적

인 인간, 또 다방면으로 계발된 유능한 인간, 이런 쪽만 강조를 하다 보니까 애들이 인성교육이라든지, 전체를 생각하는 마음이라든지, 이런 것이 부족했지 않느냐, 이렇게 봤을 때 그 분도 한탄을 하데요, 서울대학 들어온 애들이 영악하고, 자기만을 위하고, 자기 발전을 위한 것만은 누구한테 떨어지지 않지만 양보하고 협력하고 전체를 위하는 마음은 정말 배울게 아무 것도 없는 아이들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의미있게 들었습니다.

이런 면에서 과연 우리 국민이 정말 개인적으로 똑똑해야 되겠죠, 그러나 전체로 이것을 묶는 어떤 국민정신, 이것이 좀더 강조가 돼야 되고 또 앞으로 우리 시민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마 그 민자당에서 전체적으로 그 교육 내용이라든지, 학제라든지 개편안을 구상하고 있는가본데, 그런 것을 바탕으로 2차, 3차 이것을 시안을 변경하고 보완수정할 때는 반드시 주민여론 수렴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보는데, 그것에

대한 계획은 어떠신지 하는 것 하고, 물론 그 다음에 부정과 불의에 타협하지 않는 정의로운 사람, 그것이 무슨 도덕적인 인간관계 이러면 다 포괄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정말 정의를 강조해가지고 이 입시부정, 성적조작, 이런 거가 큰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불감증에 걸려버린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아무리 국가목표가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도에만이라도 그 항목을 떼어서 정의가 아니면 하지 않는다는 그런 강한 좀 인식을 심어 주었으면 좋겠는데, 다시 한번 고려해 주실 수는 없는지, 그리고 학생 수용계획에 있어서 2001년에 가머는 몇 명이 된다고 그랬죠?

● 기획감사담당관 신태희

예, 급당 40명이.....

● 이상일 위원

40명이죠, 매년 1명씩 줄여가는 거죠?

● 기획감사담당관 신태희

예, 그렇습니다.

● 이상일 위원

그때되면 우리는 그 소득면에서는 선진국으로 보는데 선진국에는 대개 25명을 기준으로 하는데, 그때도 우리 교육의 질문제는 선진국 수준에 못 들어 가는 거죠, 이것도 앞으로 국가가 선진국으로 되는 걸 전제로 해서 좀 대폭 인원을 낮춰가지고 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계획은 없는지, 그것 두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신태희

예, 사실은 지금 모든 이상일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 모든 세부실천 계획을 세워나가서 실천할 때에 지금 말씀하신 주민 의견수렴 방안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나갈 세부실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정신교육 문제는 여기서도 말씀드리다시피 "인간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사람, 공동체 의식을 갖춘 자주적인 사람" 이런 포괄적인 의미가 세부적으로 추진될 때에 정의로운 사람이 길러질 수 있는 방안이 모

색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급당학생수에 대해서는 원래 이게 재정적인 투자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 자리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그 방향으로 추진하겠지만 어려운 점은 상당히 많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 의장 김영세

예, 이상일위원 답변됐습니까?

● 이상일 위원

예.

(김광수위원 거수로 발언 신청)

● 의장 김영세

예, 그러면 김광수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김광수

2000년에 가려는 학생수가 급당 40명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도내의 초·중·고 평균 급당인원은 어떻게 되십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신태희

지금 현재는 4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 부의장 김광수

사실 지금 현재 평균치.....

● 기획감사담당관 신태희

지금 현재 평균은 유치원이 25명, 국민학교가 34명, 중학교 46명, 고등학교 47명 이렇습니다.

● 부의장 김광수

이것이 농촌학교, 도시학교 하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평균점이 이렇게 나오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신태희

예, 그렇습니다.

● 부의장 김광수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것은 도시학교 기준으로 봐서.....

● 기획감사담당관 신태희

전체를 기준으로 한겁니다.

● 부의장 김광수

예, 그런 평균치가 나오고 그렇게 학급 학생수요가 점차적으로 줄어드어서 40명선이 된다는 그런 얘가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신태희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조금 다시 말씀드리면 2000년에 가서는 국민학교는 41명이지만 평균은 31명입니다.

그리고 중학교는 한 명이 더 많은

평균은 42명이 되겠고, 고등학교 40명이 평균이 되는 걸로 이렇게.....

● 의장 김영세

예, 되겠습니까?

● 부의장 김광수

예.

● 의장 김영세

예, 또 보충질의 하실 분.

(이재희위원 거수로 발언 신청)

예, 이재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재희 위원

제가 교사들의 자질향상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21세기를 향한 충북교육발전계획이 잘 못됐다고 하더라도 일선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선생님들의 질과 성의에 의해가지고 교육의 효과는 판도가 달라 지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보통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하기를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그러는데 보통 25세에 첫번 발령 받으면 65세까지 40년이면 강산이 네번이 변하고도 남는 겁니다.

그런데 강산이 한번 변할 때 정보

라든지 하는 건 그보다 수치가 훨씬 빠른데, 지금 여기 계획에 교사의 자질향상을 위해서 자격, 일반, 직무연수 해가지고 약 3만 500명이 해당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이 됐는데, 수치상으로로는 교사 1인당이 한 두번 꼴로 이 강습을 받는 걸로.....

● 기획감사담당관 신태희

예, 한 두번 반정도는 되겠습니다.

● 이재희 위원

예, 그런데 제 경험으로 보며는 과연 일반연수 60시간, 80시간 받아가지고 얼마나 효과가 있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앞으로 어떤 승진이라든지 이러한데는 무슨 자격증을 많이 가지고 있다든지, 학위가 많이 가지고 있다든지, 또는 이수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에 더 우대 점수를 주며는 선생님들이 여러 방면으로 좀 자격증을 취득을 해서 만능 교사가 되지 않을 거냐, 사실 요새 일선에 가가지고 국민체조를 제대로 하는 선생님도 간혹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어로빅을 지도한다든지
포크댄스를 한다든지, 또는 무슨 수영
을 한다든지, 또는 어떤 그 경기에
정확한 심판을 볼 줄 안다든지 하는
아주 폭넓은 선생님들의 어떤 재교육
이게 이거보다는 더 구체적으로 좀
과감한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
게 생각이 되는데 이거에 대한 수정
의향은 없으신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신태희

예, 지금 이재희위원님께서 말씀하
신 내용을 저희 계획에 의해서 구체
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은 예산이 자
질향상을 위해서는 저희 예산에 비해
서는 엄청나게 투자요구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총괄적으로 보며는
10개년간에 115억 8,600만원이 연수
비로 지금 투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자격연수가 초등에 2,344명에
11억 3,000만원이 투자가 되고, 또
중등에 5,150명 자격연수를 하는데
37억 2,300만원이 투자가 됩니다.

그리고 일반연수는 전체가 초등,
중등해서 1만 570명이 되겠고, 그리

고 직무연수가 지금 초등에서 3,570
명이 있고, 석·박사학위 특별연수가
417명, 또 국외연수가 전체해서 1,630
명, 그래서 지금 저희 재정형편으로
봐서는 상당히 할애가 되지 않았나
하는 저희 계획에 비중을 차지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재희 위원

지금 담당관님이 말씀하신 것은 앞
으로 G.N.P 5% 그 교육투자를 했을
때 감안을 하신 겁니까, 현재기준으
로 해서.....

● 기획감사담당관 신태희

예, 현재기준으로 해서.....

● 이재희 위원

현재기준으로.....

● 기획감사담당관 신태희

예.

● 이재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김영삼 대통령이 지
금 임기중에 5% G.N.P 그것을 하니까
이러면 이 기간동안에 상당히 증액이
될 것으로 봅니다.

교원들의 아주 그 재교육이 지금
현재말고 대폭적으로 장기간 교육이

필요하지 않느냐, 앞으로 수정할 기회가 있으면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신태희
예, 감사합니다.

● 의장 김영세
예, 그러면 또 다른 위원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권혁풍위원 거수로 발언 신청)

예, 권혁풍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권혁풍 위원
제가 몇 가지 질문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래 그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단기계획이 있고, 중·장기계획이 있겠습니까마는 단기계획은 어떤 그 짧은 동안에 전망을 전제로 하고, 하는 거겠고, 지금 세운 이 10년 앞을 내다보는 중·장기계획은 적어도 단기계획의 전망이라든가 이것을 넘어서서 어떤 비전, 멀리 내다보는 그런 안목을 바탕에 깔고서 하되 실용성이 있는 것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장·중·단기계획의 기본

특성이 그런 것 아닌가 이렇게 보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어가면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그저 이러한 계획을 과연 세울 필요가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을 전체적으로 가지면서, 즉 충북교육의 특성을 살리면서, 또 정부의 보편적인 그 일반적인 교육계획에 터해서 충북의 특성을 살린다는 실현가능성은 어떨지 몰라도 즉 충북고유의 어떤 꿈을 제시하는 그러한 면이 부족하지 않았는가 하는 그러한 아쉬움을 제가 느꼈는데 제가 물론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참 이상일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하시는데, 그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기회를 못가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안가지전 아니라 다행입니다마는 여러가지 가져 불려고 애를 쓰셨는데 못가진 걸로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과연 가져 불려고 애를 쓰셨느냐, 기본적인 자세가 교육정책은, 충북지역 교육정책은 교육감 물론 산하에 있기 때문에 교육위원회가 있고, 주민이 있고 하지마는 어디까지나 교육감의 고유권한이다.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을 거의 들어
볼 필요가 없다, 전문적인 일이기 때
문에 하는 그러한 자세가 역역히 엿
보여서 상당히 유감스러운 생각을 갖
습니다.

못가졌다고 하시는데 사실은 안가
진 것 아니냐, 법에 그렇게 되어 있
다고 해서 법을 빙자해 가지고서 "법
대로 하는데 무슨 잔소리냐" 뭐 이런
게도 말씀할 수 있습니다마는 법을
처음부터 말씀하신다는 것은 차원이
낮은 얘기고,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
지마는 법을 넘어서서 우리는 운용을
이렇게 하겠다, 그래서 "법에는 주민
들의 공청회라든가 교육위원회 얘기
를 들어보지 않고도 계획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법대로 한 것이다." 이
렇게 말한다면 여기서 뭐 얘기 할
거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법을 넘어서서 우리 교육위
원회라는 주민대표 기관이 엄연히 있
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보고하신 식
으로 그치고 어떤 수렴의 의지를 보
여주지 않으시고, 절차도 그렇고 "그
저 그렇게 알고 있어라"하는 이 정도

의 태도로 저희들은 받아들일 수 밖
에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계획을 세우실
때는 이 주민자치시대에 보다 많은
사람들의 민주적인 열기, 교육적인
관심, 이런 것을 집중해서 보다 좋은
증지를 수렴하시며는 보다 훌륭한 계
획이 되고 주민들의 교육에 대한 관
심을 제고시킬 수 있는 기폭제가 될
수 있는데, 그러한 좋은 기회를 다
놓치시고 이제 와서 "뒤에 와서 수정
을 하시겠다", "앞으로 수렴을 하시겠
다" 이것은 앞 뒤가 맞지 않는 얘기
라고 봅니다.

그래서 법만 따지시지 말고 어디까
지나 시대적인 정신이라든가 이런 것
을 살리셔서 되도록이면 많은 사람들
의 의견을 듣는 그런 기본적인 민주
적인 자세가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그런 말씀을 안드릴 수가 없습니다.

첫번째에 대한 질문을 아까 답변하
시는데, 앞으로 계속 수렴계획을 갖
겠다고 하시는데, 어떤 구체적인 계
획이 있으신지, 뭐 공청회를 몇 번
가지실 거며, 토론회를 몇 번 가지실

거며, 어떠한 절차를 거쳐 계획을 수정해 가실 건가, 그거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시고, 두번째는 사회교육의 중요성을 참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학교 교육만 가지고는 도저히 되지 않고, 요새 학교에 보충수업이 철폐되고, 학원을 개방한다는 것이 바로 이러한 추세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교육의 일부를 담당하고 나머지 일부, 즉 보편적인 교육내용은 학교에서 맡아 하고, 그렇지 않고 학생들의 개성을 살리고 개별성을 살리는 그런 그 부문은 특수성을 살리는 것은 사회교육 부문에서 맡아야 된다, 하는 이러한 방향으로 바꾸어 지는데, 이렇게 커다란 흐름속에서 본 계획을 보니까, 사회교육의 목표도 서있지 않고, 방향도 없습니다.

어떤 조직을 만들겠다는 것도 없고요원은 어떻게 양성하겠단, 전혀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어떤 사업을 계획하겠단, 또 사회체육계획은 어떻게 세우겠단, 주민은

어떻게 교육제도를 하겠단, 그냥 막연히 몇 줄 참 구색을 갖추느라고 넣은 것 같은 그러한 감을 느끼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이번에 일본을 갔다와 보니까, 일본에 도쿄의 교육을 보니까, 사회교육의 기본목표가 서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간을 존중하는 그런 인간을 만들겠다는가, 그런 목표가 다 있어서 그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못 세웠다고 하더라도 기본 방향만은 어딘가 거기가 좀 서있어야 될 것 아니냐, 가장 중요한 몇 가지는 서 있어야 될텐데 좀 막연히 그냥 대체적으로 흘러간 것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에서 앞으로 사회체육교육은 어떠한 목표와 방향을 갖고서 하실 건지, 거기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입시제도가 국가차원에서 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우리 충북에서는 어쩔 수가 없다. 즉 국가의 계획을 봐가면서 할 수 밖에 없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교육계획 세울 필

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국가에서 하는대로 그때 그때 따라가면 될 것이 지 충북교육계획을 왜 따로 세우느라고 고생하시며, 시간을 이렇게 낭비 하십니까?

그때 그때 국가 교육부에서 하는대로 따라가면 되는 것 아닙니까, 아마 충북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서 뭔가 먼저도 A안, B안을 내시고 뭐 하신 것도 알고 있는데, 뭔가 그것도 장기적으로 국가 다른 지방에서는 이렇게 할지언정 우리는 좀 이렇게 하겠다, 하는 어떤 꿈을 제시를 하며는 차차로 그 꿈이 바람직스러운 꿈이라며는 그쪽 방향으로 서서히 변화가 될 것 아닌가, 해서 그런 그 비전 이럴 때에 이 교육계획이 장기계획이 필요한 건데, 그것을 세우지 않고 꼭 국가에서 하는대로 따르겠다, 그러면 충북교육 뭐하러 세우니까, 그래서 10년 뒤에는 지금부터 서서히 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초등 보통교육이 대학입시에 매이지 않고, 완전히 독자적으로 대학입시를 쳐다보지 않고 우리 교육 독립을 하겠다, 뭐 이런 원대

한 꿈을 펼쳐야 할텐데, 그래서 하나 하나 실천해서 그때가서는 정말 그렇게 될 수 있는 그러한 꿈을 비전을 제시한다든가, 이렇게 되며는 정말 주민들이 "우리 충북교육은 달라지는구나" 하는 그러한 희망에 부풀을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을 발견할 수가 없어서 아쉽습니다.

그러한 안이 또 뭐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이 계획을 수립할 단계에 계획단계, 실무단계, 집행단계, 이 3단계가 있었는데, 구상단계까지 4단계가 있었는데, 제가 질문드린 것은 그 교육정책을 어느 단계에서 세워 놨느냐, 즉 계획 정책 기본계획을 세우셨다고 했는데 거기서 한건가, 그게 확실히 들어나지 않고 있는데,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 과연 전문적인 어떤 충북에도 참 전문교육기관이 많습니까, 연구기관도 많고 교원대학도 있고, 충북대학도 있고, 청주대학도 있고 상당히 전문적인 교육기관이 많은데 그쪽에 자문위원의 자문을 전혀 받은 근거가 없습니다, 그 흔적도

없는데, 과연 그렇게 해서 10년 앞을 내다볼 수 있는가, 적어도 10년 앞을 내다보면 미래학적 그런 그 조명이 필요한데, 어떻게 우리 실무진에서 물론 실무진에서 못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과연 전문적인 지식의 지원을 받을 필요성이 과연 없었던가 하는 몇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 의장 김영세

예, 지금 답변하실 수 있으십니까? 시간을 드릴까요?

어떻게 됩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신택희

예, 조금 답변시간.....

● 의장 김영세

답변 시간을 여유를 드릴까요?

● 기획감사담당관 신택희

예.

● 의장 김영세

예, 그러면 답변 준비를 위해서 한 10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34분 계속개의)

● 의장 김영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관계관계서 답변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옴)

● 기획감사담당관 신택희

계속해서 답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 장기발전계획을 수정 보완하게 될 때 간담회, 공청회를 개최할 대책은"에 대해서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의장 김영세

마이크에 좀 가까이 대주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신택희

예, 중요한 사업 변경이나 계획 수정이 있게 되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학부형과 교직원, 그리고 교육위원님들의 자문을 받아 필요하다는 간담회, 공청회를 개최하여 민주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입시제도에 대한 대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 입시제도와 대학 입시제도는 고등학교 입시제도는 저희 집행

부 소관에 속하겠지마는 대학 입시제도는 국가적인 시책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행부 입장으로는 법을 떠난 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시·도 교육감 협의회에서 고등학교 입시제도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을 개정할 것을 요구중에 있습니다.

대학입시 제도에 대해서 교육부 소관 업무이므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집행부 입장으로는 현재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가 없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계획이었으나 이를 행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향후 계획에 보완이나 수정이나, 또는 새로운 계획이 첨가될 때에는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면 전문가의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교육에 있어서 사회교육 목표 방향을 명시되지 아니 했다는 그 질

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71쪽의 상단에 "전 주민의 평생교육 실시, 출생으로부터 사망까지, 또 급변하는 사회에 대처하기 위한 생활 관련 지식은 물론 교양교육 실시" 그러니까 국민교육의 자질향상 이런 것은 사회교육의 목표를 제시한 것이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리고 사회교육의 조직 요원양성, 모든 사회교육의 조직적 운영은 현 상태로 봐서는 좀 불가합니다.

왜냐하면은 각 기관 단체 및 민간인이 실시하는 교양강좌, 취미교실, 독서모임, 동호인모임 등 성질별로 볼 때 단체별로 체계적 운영을 요함으로 집행부로서는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방향제시 정도 밖에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요원양성은 각 대학에서 전문요원 양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교육기관, 전문요원 양성기관은 즉 예산형편으로 봐서나 막대한 예산을 요함으로 현재로서는 계획에 넣지를 못하였습니다.

사회교육의 사업계획, 사회교육의

다양성으로 성질별, 또는 실시단체
주체별로 계획이 수립돼야 될 줄 믿
습니다.

또 주민제도는 교양분야와 지식분
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 학교자모회, 일반 주민들을 대
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교의 사회교육센터 역할은 관련
기관과 긴밀한 협조로 주민을 대상으
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계속하여 적극적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입니다.

● 의장 김영세

어떻게 답변되겠습니까?

더 보충질의 있습니까?

● 권혁풍 위원

말씀을 또 안드릴 수가 없네요.

● 의장 김영세

예.

● 권혁풍 위원

지금 답변 말씀에 "필요하며는 공
청회도 하시고, 토론회도 하시고, 전문
위원회도 모시겠다" 그렇게 답변을 하
셨는데 필요한 줄을 여기서 여태 모
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며는

그걸 필요한 것을 아직도 모르셨다,
그게 문제라고 봅니다, 그럼.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서울특별시의
장기발전계획을 세우는데, 전문가 집
단에다가 요구를 해서 용역을 무려 2
억이라는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또 이웃에 충남, 여기도 제가 발전
계획을 보았습니다. 봤더니 대학교
수 전문요원을 모셔다가 참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하는 것을 보았
습니다.

하여튼 충북만은 그런 필요성을 못
느꼈을까 하는데 의아심을 갖고, 그
럼 필요한 것을 느낄 때까지는 그런
필요성을 안하시겠다는 얘기인데, 뭐
지금 확정된 상태에서 저거를 어떻게
구체적인 그런 계획이 아직도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더 이상 질문을 드려
봐야 답변 말씀도 그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래서 좀 질문을 그치면서 아
까 말씀드린 것 처럼 장기발전계획,
교육은 100년 대계라고 하는데, 100
년은 고사하고 10년을 참내다 보지도

못하고 하는데 10년이면 참 장기계획입니다.

그건 어쩌면 꿈과 같은 얘기입니다
10년 앞을 내다보는 꿈과 같은 그래서 비전이라는 얘기는 바로 꿈과 같은 얘기인데, 따라서 실현성이 의심되는게 많습니다.

꿈이니까, 어디까지나 그러나 그 꿈을 현실화 시킨다는 그러한 노력이 플러스(+)돼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 가장 훌륭한 계획은 실현가능성이 참 100%에 가까워지는 그런 꿈이다 이렇게 되려는 전문가의 의견도 필요하고,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하는 그러한 그 민주적인 자세가 필요한데, 처음부터 그런 자세가 아니었다는 것을 제가 꼬집어서 말씀 안드릴 수 없고, 다시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하시겠나 예의주시를 하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신택희

예, 감사합니다.

● 권혁풍 위원

아니, 그 말씀을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듣다보니까, 우리 어떤 그 바람직한 인간상, 교육에서 말하는 어떤 바람직한 인간상을 우리 한국 교육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지금 수립을 못하고 있는 상태다, 물론 6차 5개년 계획 저기 교육과정계획에는 물론 창의성, 도덕성, 뭐 이런 것이 있습니다만, 그것을 기준으로 한 거기 때문에 뭐 더 우리 충북에서 그 이상 어떻게 나갈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답변이셨는데, 그것은 국가적인 차원입니다.

국가적인 차원이 되든 안되든 국가적 차원의 6차 교육과정의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세워 놓으신 것은 참 다행으로 생각합니다마는 거기에 연계를 시킨 것은, 그러나 충북발전 계획을 세우려면 뭔가 충북의 특색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상일위원님이 그러한 말씀을 하신 걸로 압니다.

뭐 선비정신이라든가 뭔가 특색있는 것 하나 더 넣어야 될 것 아니냐, 그러면 각 도에 뭐 상징적인 어떤 새를 넣고, 꽃을 넣고, 나무를 넣고 하

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안세운다면 모를까, 세우려며는 충북나름의 뭐 특수성을 집어넣어야 될데데 그런 넣는 방법이 그래 몇 사람의 집필위원들 실무진들이 해가지고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적어도 충북 주민들이 어떤 상징적인 인간상, 이것을 수집을 해야될 텐데 이게 그래 집필위원 몇 분들이 집필해가지고 됩니까, 어디까지나 범도민적으로 어떤 기구를 만들던가 하셔서 교육위원 조직도 있고, 또 교육위원회가 주민들의 여러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가교역할도 하고, 어디까지나 우리가 연구를 하며는 어떤 조직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공청회도 여러번 거치고 해서 아주 매스컴에 힘도 받고 이렇게 해서 우리 주민들이 어떤 일치된 거의 일치되는건 힘든 애깁니다마는 거의 의견이 일치되는 어떤 그 정신적인 모델이라든가, 어떤 목표를 하나 세울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국가적인 차원 그 다음에 우리 충북의 차원, 이렇게 해서 충북의 특성을 살리는 이러한 목

표가 서있지 않고서야 나머지는 다 볼 것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참 이 계획이 얼마큼 실현 가능성이 있느냐, 이것은 둘째쳐야 됩니다, 우선 꿈이기 때문에.

그러나 실현가능성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그러한 자세, 앞으로도 그러한 그 조직, 그런 기구를 만들어서 새로이 출발을 해서 할 그러한 계획을 제가 측구를 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영세

예, 촉구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했죠?

● 권혁풍 위원

예.

● 의장 김영세

또 다른 보충질의 더 하실 분.

(박병해위원 거수로 발언 신청)

예, 박병해위원 질의하시지요.

● 박병해 위원

첫번째, 그 광범위한 의견 수렴에 관한 것은 권혁풍위원님이 많은 보충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다만 저는 의견 수렴은 이번 회의때에 교육위원

들이 "보완해 나오"하는 어떤 문제를 제기한 것을 이걸 충분히 연구해서 보완해 준다고 하려는 제1차적인 수렴은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이 2차적인 더 광범위한 수렴은 다시 계획을 세워서 권혁풍위원님이 말씀한 모든 의견을 좀 수렴해서 해주시면 좋을 걸로 알고 더 이상 질문은 안하겠습니다.

두번째, 학생들의 교육 인간성 육성 이런데는 정신적으로나, 지적면이나, 또는 육체적인면 기술연마 등 이런데 대한 것은 아주 상세히 제시가 돼있으면서 왜 선생님들에 대한 것은 그렇게 미흡하게 적당하게 넘어갔느냐, 이런 질문을 해드렸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에 선생님들의 연수계획 이런 것을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연수계획에 관한 것도 그전부터 누누이 강조를 제가 해서 각종 연수 때 도덕성 문제를 10%로 꼭 삽입을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한 바가 있는데 그것도 요새 연수를 한 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며는 아직도 그게 제대로 실천이 안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

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하려는 이번 이 계획에는 더군다나 요즘 뭐 신한국인 뭐 운운하면서 여러가지 자정운동이 많이 나오는데, 이럴 때에 교원들의 부패상을 이것은 정말로 척결이 돼야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가 아주 소리 높게 이렇게 되어 가는 이런 때에 이런 장기계획에 선생님들의 그러한 부패상은 없어지게 하는 어떤 방안은 세워져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자정계획은 꼭 좀 수립을 해서 넣어다오" 하는 이런 부탁입니다. 판 뭐 이런 저런 얘기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예절이나 절제교육중에 충효교육이 빠진 이유는 아까 답변을 보며는 애국심 뭐 이런데 다 들어가 있고 여러가지 말씀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들의 예절교육에 생활관에서 절하는 것을 배웠다, 뭐 인사제도 어떻게 해서 이런 방향으로 배웠다, 참 좋습니다.

좋은데 이런 장기계획에 충하고 효과가 빠진다고 하며는 모든 예절, 모든 효행, 모든 백행의 근본이 되는 그 충효가 빠진다고 하며는 그건 뭔가 정신이 빠졌어요, 이거. 난 그렇게 봅니다. 배우기도 그렇게 배웠고, 그 동안의 경험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 이것도 판 얘기보다도 이견 반드시 삼입이 돼야 한다, 전 그렇게 믿습니다.

그 다음에 88페이지서부터 89페이지 그 사이에 교육계획 수립에 보며는 판 것은 다 제대로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이 됐는데, 그 학교 그 학교마다에 그 많은 따라가지 못하는 학생들에 보충지도는 어떻게 할 것이냐 현재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전반적인 학생들의 보충지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못 따라가는 아이들에 대한 보충지도는 그냥 현재까지 나들거나, 이 계획이 빠졌다. 그러니까 이 계획도 세워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고 그 보충계획같은 것에 아까 위원님들 몇 분들이 학급당 인원 2천 년도에 가며는 몇 명이나 되는 거냐,

뭐 이런 것, 뭐 외국이나 저희 나라나 현실로 봐서 학급당 인원이 적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교육계의 철칙같이 이렇게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교육청에서는 몇 명이 줄었으니까 이게 교육이 이제 제대로 될 것이다, 하는 얘기는 이것은 망상입니다.

왜그러느냐, 현재 이 촌 촌마다에 없어지는 학교, 직전에 있는 학교들을 보며는 학급당 지금 8명짜리도 있고, 10명짜리도 있고, 15명짜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데 있는 학구 학생들의 실력은 왜 도·농간의 격차가 그대로 남아 있느냐, 앞으로 25명이나 40명이나 될 때에 그 때 실력이 된다고 하는 건, 앞서서 지금 현재 20명이나 25명, 혹은 7명, 8명 되어 있는 학급 아이들의 실력은 왜 그러냐, 이것부터 실천해 나가면서 그 실천도 안하면서 학급당 뭐 2000년도에 가서 몇 명한다, 이것만 논할게 아니다 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계획도 좀 제대로 세워서 정말로 도·농간에 모든 격차도 이런데서부터 없어지게 하는 것은 곧 선생님들의 교구, 또 교육청에서 어떤 계획적인 문제 여기에 달려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교감이나 장학사들의 편람 작성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도 드렸는데, 이것은 작성을 한다고 하는 말씀이었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신태희

예, 이진 감사우수사례를 작성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 박병해 위원

그것은 이제 계획에 나와 있는데 그래서 그 계획이 서있기 때문에 교감이나 장학사에 대한 편람도 만들어 주며는 꼭 좋지 않겠느냐, 이게 교육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다, 나쁜짓 하던 것 "이러 이러할 예가 있으니까, 이거 하지 말아라, 이거 읽어봐라" 이것도 중요하지마는 교육으로 바로 직결되는 교감이 어떻게 어떻게 행정을 해야겠다, 장학사는 어떻게 어떻게 보

아야 하고, 뭐를 자기는 읽어야 하고 뭐는 어떻게 가서 해야겠다라고 하는 이런 편람이 반드시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거 왜 얘기를 하느냐며는 어느 교육감이 제실 때 제가 이걸 한번 제안을 했어요, 그거 만들다 그만됐습니다. 그 양반들이 만들다 그만됐는데, 이거 반드시 필요하다고 난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현재 제가 말씀드린 것은 충분히 연구를 해주셔서 보완이 됐으면 이런 욕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은 안하셔도 좋을 걸로 압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신태희

예, 감사합니다.

● 의장 김영세

예, 또 다른 위원 질문있으십니까?
(김사수위원 거수로 발언 신청)

예, 김사수위원 질의하시죠.

● 김사수 위원

기획감사담당관이 이번 충북교육발전 장기계획 세우는데 위치가 뭐니까 결국 여기 불빛 같으려는 기획위원회 들어 있는데, 지금 현재 답변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지금 답변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그 원인이 어디서 나타나며는 어제 국장들의 답변의 자세가 틀렸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봅니다.

많이 빠졌어요, 어제 국장들이 학무국장이나, 중등국장이나, 초등국장들이 답변해야 될 답변을 전부 빼먹고 안했어요.

그 안한 것을 왜 기획감사담당관이 말아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런 책임도 없는 사람이 연수교육이다, 사회교육이다, 충효교육이다, 보충수업지도 이것 답변할 수 있어요, 책임지고 그래서 이게 애초부터 계획부터 뭐 자꾸 누누이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전문위원들을 좀 위촉해서 위원회를 조직하던지 해가지고 전체적으로다가 통괄하는 이러한 부서도 누가 책임맡은 사람이 있어야 되겠고, 또 자기가 맡은 분야에 대해서 자신있게 답변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답변을 해야되지, 지금 현재 어제 이게 빠져서, 빠졌기 때문에 어제 전부 답변을 여기

다 제대로 국장들이 성의껏 질문에 대해서 했을 것 같으며는 오늘 이러한 질문이 재차 나오지도 않을 거고, 또 답변도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뭔가 그 전문위원도 위촉해서 다시한번 해보겠다 하는 그런 의지도 보이고 하니까, 좀 더 조직부터 책임있게 하고, 또한 답변도 각 국장들이 책임있는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또 위원들이 질문한 것을 전부 검토를 해서 전부 해주어야지 왜 빼놓고 안합니까, 어제 이게 다 질문이 관계국장들이 했을 것 같으면 오늘 이런 저런 얘기가 나올 것이 아니고, 오늘의 답변은 기획감사담당관이 할 답변 성질이 아니에요.

그걸 참고하셔서 앞으로 운영하는 데 참고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의장 김영세

또 다른 질문있으십니까?

(위원석 침묵)

예, 그러면 이상으로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지지요.

그러면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 침묵)

예, 없으시지요.

(김광수위원 거수로 발언 신청)

예, 김광수위원 말씀하세요.

● 부의장 김광수

예, 장기발전계획 질문과 답변을 하고 들으면서 이것으로서 마칠게 아니라 더 심도있는 연구를 해서 심도있는 질문을 하고, 또 앞으로 더 확실한 대답을 해줄 그런 기회를 다음에 가져주시는 말씀 남기겠습니다.

● 의장 김영세

예, 지금 김광수위원 질문이나 김사수위원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본인도 전적으로 동감을 갖습니다.

오히려 이것을 종합화 해서 책임있는 책임부서에서 답변을 하여 주어야 할 것이 미흡하지 않았나, 그래서 다음에 좀 더 부교육감이나 교육감 선에서 우리 교육정책에 대한 소견을 듣는 기회를 다음 기회에 가져 보려

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그렇게 관심을 갖고, 다음 회기에 역시 또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간에 우리 위원님들 열의있게 참진지한 질문 많이 해주셔서 우리 고장, 우리 교육발전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이렇게 여겨 집니다.

또 이 집행청에 관계관들께서도 이 많은 질문 답변하여 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답변 범위가 또 범주가 좀 더 구체화 되어야 되겠고, 또 책임있는 이러한 분들이 답변을 교육적 소신을 발표하셨으면 더 나을 것으로 이렇게 여겨 집니다.

앞으로 회기에 그렇게 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24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본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 58분 폐회)

○ 출석위원수 : 10명

의장 김영세, 부의장 김광수, 위원 이상일, 이재희, 김응복,
이근수, 김사수, 박병해, 권혁풍, 장충호.

○ 출석공무원 : 10명

초등교육국장 홍영창, 공보담당관 정금옥, 기획감사담당관
신택희, 총무과장 고일영, 초등장학과장 채선병, 중등장학
과장 송대현, 중등교직과장 임순재, 사회교육체육과장
정철진, 재무과장 정현동, 시설과장 박성근.

(별첨 1)

議 事 日 程(案)

第 24 回 忠 淸 北 道 教 育 委 員 會 (臨 時 會)

1993. 6. 17. - 6. 19. (3일간)

日 時	附 議 案 件	備 考
'93.6.17(목) 14:30	※ 개회식 【 제1차 본회의 개의 】 1. 제24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 2.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 3.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제안설명 4. '93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정수관리대상물품 처분안 제안설명 5. '93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제안설명 【 제1차 본회의 산회 】	회 기 6.17.-6.19. (3일간)
6.18(금) 10:30	【 제2차 본회의 개의 】 1.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의결 2. '93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정수관리대상물품 처분안 의결 3. '93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의결 4.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 제2차 본회의 산회 】	
6.19(토) 10:30	【 제3차 본회의 개의 】 1.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2. 기타 인건 처리 【 제3차 본회의 산회 】 ※ 폐회	

(별첨 2)

의안번호	제 24 -1 호
의결년월일	1993. 6. 18 ; (제 24 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 출 자	충청북도교육감
제출년월일	1993. . .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4 - /

제출년월일 : 1993. 6.

제 출 자 : 충청북도교육감

□ 개 정 이 유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증명수수료를 충청북도 제증명수수료와 동일 금액으로 조정하여 형평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 주 요 골 자

○ 제증명수수료 조정 (안 제3조 및 별표 1).

(금액단위 : 원)

구 분	현 행	개 정 안
제 증 명 수 수 료	200	300

○ 공공단체가 공무상 신청하는 제증명 발급에는 수수료감면사실확인 고무인을 날인하도록 함 (안 제4조 제2항).

□ 개 정 근 거 : 해당없음

□ 조 례 안 : 덧붙임

□ 참 고 사 항

○ 예산조치 : 해당없음

○ 신규조문대비표 : 덧붙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 (징수대상 및 요금) ①제증명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은 별표1과 같이 한다.

②제1항에 의한 제증명으로서 여러 건의 사항을 일괄하여 1통의 증명을 청구할 경우에는 각 사항마다 이를 1건으로 하며, 같은 내용의 증명을 2통이상 청구할 때에는 매통마다 수수료를 징수한다.

제4조본칙을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별표2 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9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제 증 명 수 수 료

(금액단위 : 원)

구 분	기 준	징 수 금 액
1. 신원에 관한 사항		
① 재직·경력 및 퇴직 등에 관한 증명	1 건	300
② 연수 및 이수 등에 관한 증명	1 건	300
③ 졸업(예정)·재학(제적)·성적등에 관한 증명	1 건	300
2. 회계에 관한 증명		
① 납품 및 공사 사실에 관한 증명	1 건	300
② 원천징수 등에 관한 증명	1 건	300
3. 기타 공부 등에 의해 발급하는 증명		
	1 건	300

[별표 2]

수수료 감면사실 확인 고무인

	15 cm
1.5 cm	이 증명은 수수료를 감면하고 발행한 증명임 인

신 구조문 대비 표

현행	개정
<p>제1조 - 제2조 (생략)</p> <p>제3조 (징수대상 및 요금) ①수수료를 징수할 사항 및 그 요금은 다음과 같다.</p> <p>1. 신원에 관한 제증명 1건당 200원 (공무원증 및 신분증 제외)</p> <p>2. 공사실적 증명 1건당 200원</p> <p>3. 기타 교육감이 징수대상으로 인정하는 제증명 1건당 200원</p> <p>②제1항 증명증 외국문으로 발행하는 경우 1건당 50원을 가산한다.</p> <p>③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증명사항으로서 수개 사항을 일괄하여 1통의 증명을 청구할 때에는 그사항마다 이를 1건으로하고 동일사항 증명을 2통 이상 청구할 경우에는 매통마다 그리고 수인을 열거하여 증명을 청구할 경우에는 매인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 한다.</p> <p>④사진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증명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수수료에 불구하고 그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p> <p>제4조 (생 략) (신 설)</p> <p>제5조 (생 략)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p>	<p>제1조 - 제2조 (현행과 같음)</p> <p>제3조 (징수대상 및 요금) ①제증명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은[별표1]과 같이 한다.</p> <p>②제1항에 의한 제증명으로서 여러 건의 사항을 일괄하여 1통의 증명을 청구할 경우에는 각 사항마다 이를 1건으로하고, 같은 내용의 증명을 2통이상 청구할 때에는 매통마다 수수료를 징수 한다.</p> <p>제4조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경우에는 [별표2]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p> <p>제5조 (현행과 같음) 부 칙 이 조례는 199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p>

(별첨 3)

의안번호	제24-2 호
의 결	1993. 6 . 18 .
년 월 일	(제 24 회)

'93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정수관리대상물품처분안

제 출 자	충청북도교육감
제출년월일	1993 . 6 . .

'93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정수관리대상물품처분안

의안 번호	24-2
----------	------

제출년월일 : 1993. 6. .

제 출 자 : 충청북도교육감

□ 제안 이유

정수관리대상물품중 본청의 노후차량을 처분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차량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함.

□ 주요 골자

본청 차량중 내용년수가 지난 다음 물품을 처분하고자 함.

품 명	정수	보유량	처 분		내용년수	취득년월일	비고
			수 량	금 액			
짚승용차	1	1	1	7,690,000	6	85.7.24	

□ 제안 근거

- 지방재정법 제95조 (물품관리기준의 설정)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13조 제2항 (물품관리 기준의 설정)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별첨 4)

의안번호	제 24-3 호
의 결	1993. 6. 18.
년 월 일	(제 24 회)

19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
변 경 계 획 안

제 출 자	충청북도교육감
제출년월일	1993. 6. .

'93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계획 안

의 안	24-3
번호	

제출년월일 : 1993. 6. .

제 출 자 : 충청북도교육감

1. 제안 이유

도유(교육)재산의 보존 및 관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여 도유(교육)재산의 관리에 적정을 기하고자 함.

2. 주요 골자

가. 대상기관 : 본청 및 지역교육청

나. 변경 내역

1) 취득

(단위: m²/천원)

구 분	당 초		변 경		증 감	
	물 량	금 액	물 량	금 액	물 량	금 액
토 지	70,636	14,917,795	70,636	14,917,795		
건 물	70,130.39	26,029,360	70,601.59	26,148,860	471.2	119,500
공작물			1식	3,500	1식	3,500
계		40,947,155		41,070,155		123,000

2) 처분

(단위: m²/천원)

구 분	당 초		변 경		증 감	
	물 량	금 액	물 량	금 액	물 량	금 액
토 지	167,971.9	3,997,117	168,703.9	4,030,772	732	33,655
건 물	34,498.63	2,552,294	34,570.63	2,557,707	72	5,413
공작물	36 식	28,970	37 식	30,645	1식	1,675
계		6,578,381		6,619,124		40,743

3) 유상사용허가

(단위 : m²/천원)

구분	당 초		변 경		증 감	
	물 량	금 액	물 량	금 액	물 량	금 액
토 지	648,985.16	91,375	648,985.16	91,375		
건 물	22,839.24	98,916	22,839.24	98,916		
계		190,291		190,291		

4) 무상사용허가

(단위 : m²/천원)

구분	당 초		변 경		증 감	
	물 량	금 액	물 량	금 액	물 량	금 액
토 지	89,475		89,475			
건 물	7,278.6		7,278.6			

3. 제안 근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4조 (공유재산관리계획)

4. '93.공유재산관리계획 내역 : 덧붙임

5. 관계법령 발췌서 : 덧붙임

'93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내역

(단위 : m²/천원)

중정부도육정

구분	재신 별	학교명	사업명	당		변		경		중		사	유	비	고
				물	금	물	금	물	금	금	액				
취득	건물	제전고	구내매점 개축			230		20,000		230		기부채납 (기증자-제전고 육성회정 신기호)		배지도 6쪽	

(단위 : m²/천원)

육전고육정

구분	재신 별	학교명	사업명	당		변		경		중		사	유	비	고
				물	금	물	금	물	금	금	액				
취득	건물	이원국 군남국	교실 개축			91.8		33,000		91.8		교실 노후로 개축		배지도 7쪽	
			계단실 증축			67.5		33,500		67.5		계단실 부족으로 증축		배지도 8쪽	
			소 계			159.3		66,500		159.3					
처분	토지	군남국	교문 개축			1 식		3,500		1 식		육전-고당간 도로 확장공사 사 편입으로 인한 개축		배지도 8쪽	
			토지매각(보상)			732		33,655		732		육전-고당간 도로 확장 공사 편입		위지도 9쪽	
			교문매각(보상)			1 식		1,675		1 식		"		"	

(단위 : m²/천원)

예산교육점

구분	재신 본	학고명	사 명	업 적		법 경		지 감		사 유	비 고
				항 목	액	항 목	액	항 목	액		
취부	건물	심성중	계단실 개축			81.9	33,000	81.9	33,000	계단실 노후로 인한 개축	배지도10쪽
처분	건물	심성중	계단실 철거			72	5,413	72	5,413	노후(1970.결.콘.슬)	"

관계법령 발췌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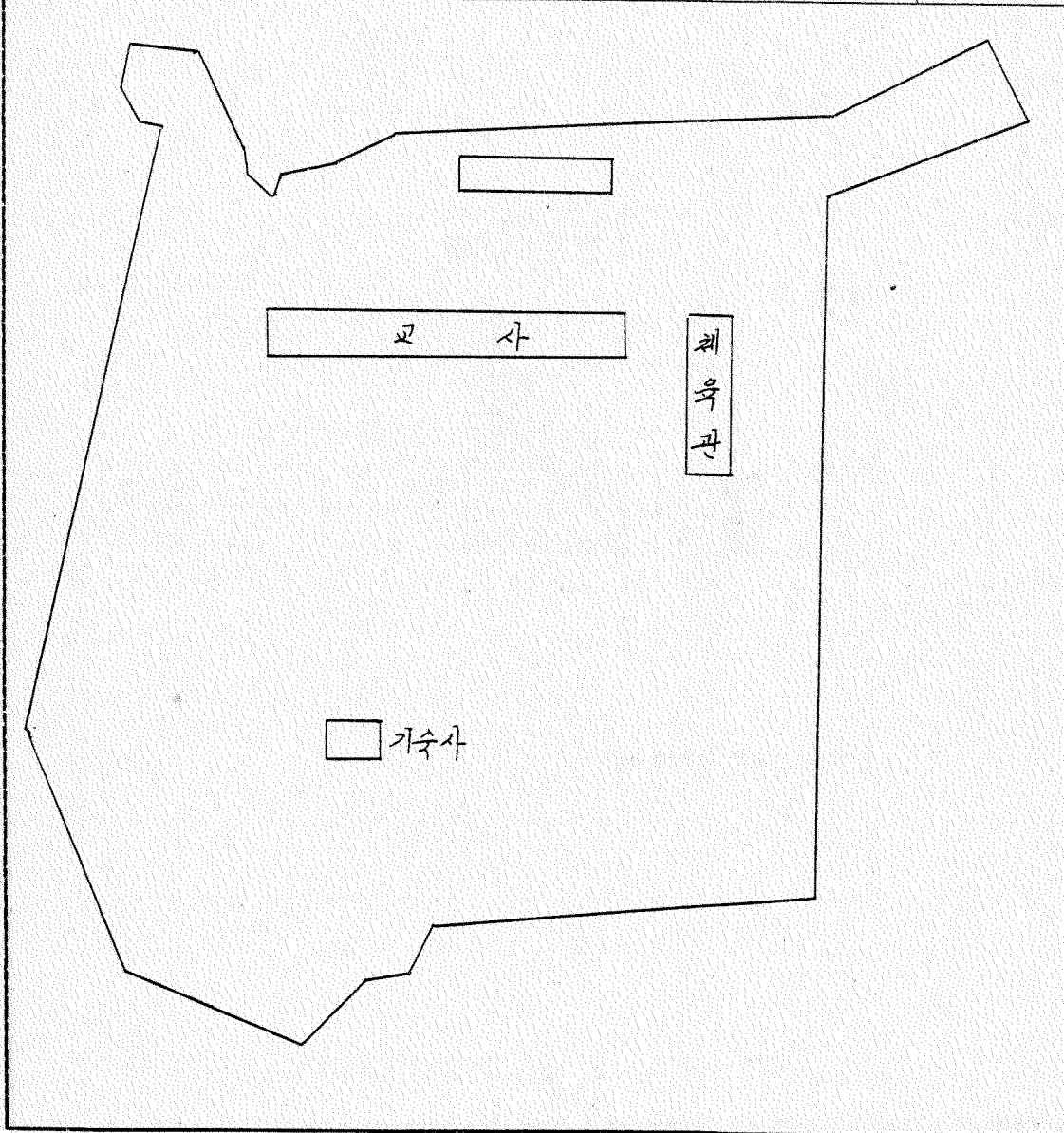
○ 공유재산관리조례 제 34 조 (공유 재산관리계획)

- ① 교육감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에 속하는 예산과 사업예정에 따라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관한계획을 수립하여 전년도 12월 31일 까지 교육위원회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 관리 및 처분 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중에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천고등학교 건물 취득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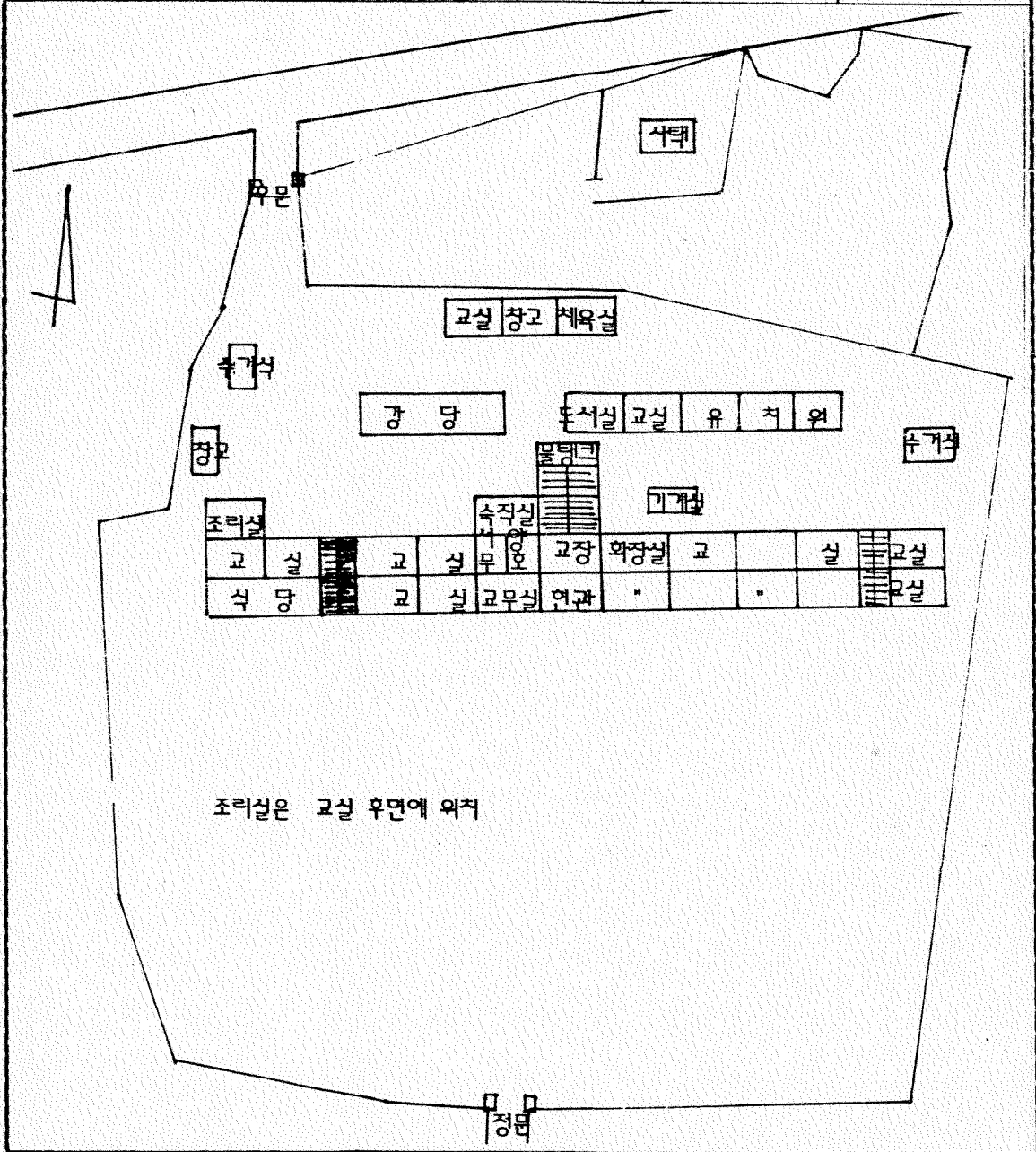
=====

용도	소재지	지번	구조	면적(㎡)	금액(천원)	사유
구내점	제천시 청전동	163-1	조립식	230	20,000	기부채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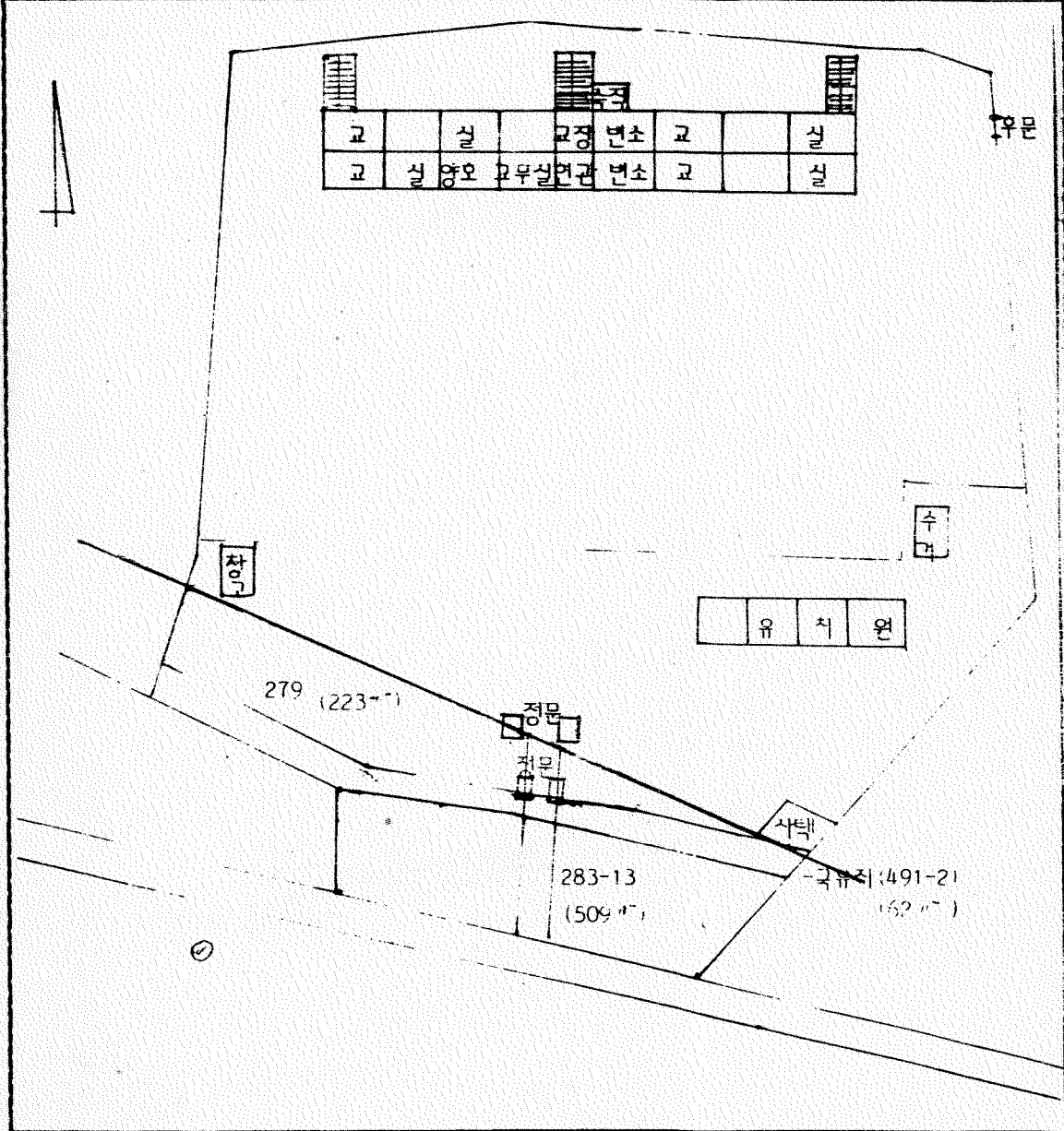
이원 국민학교 건물 취득 배치도

용도	소재지	지번	구조	면적(㎡)	취득금액(천원)	사유
교실	이원면 강청리	14-9	철, 콘, 슬	91.8	33,000	교실 개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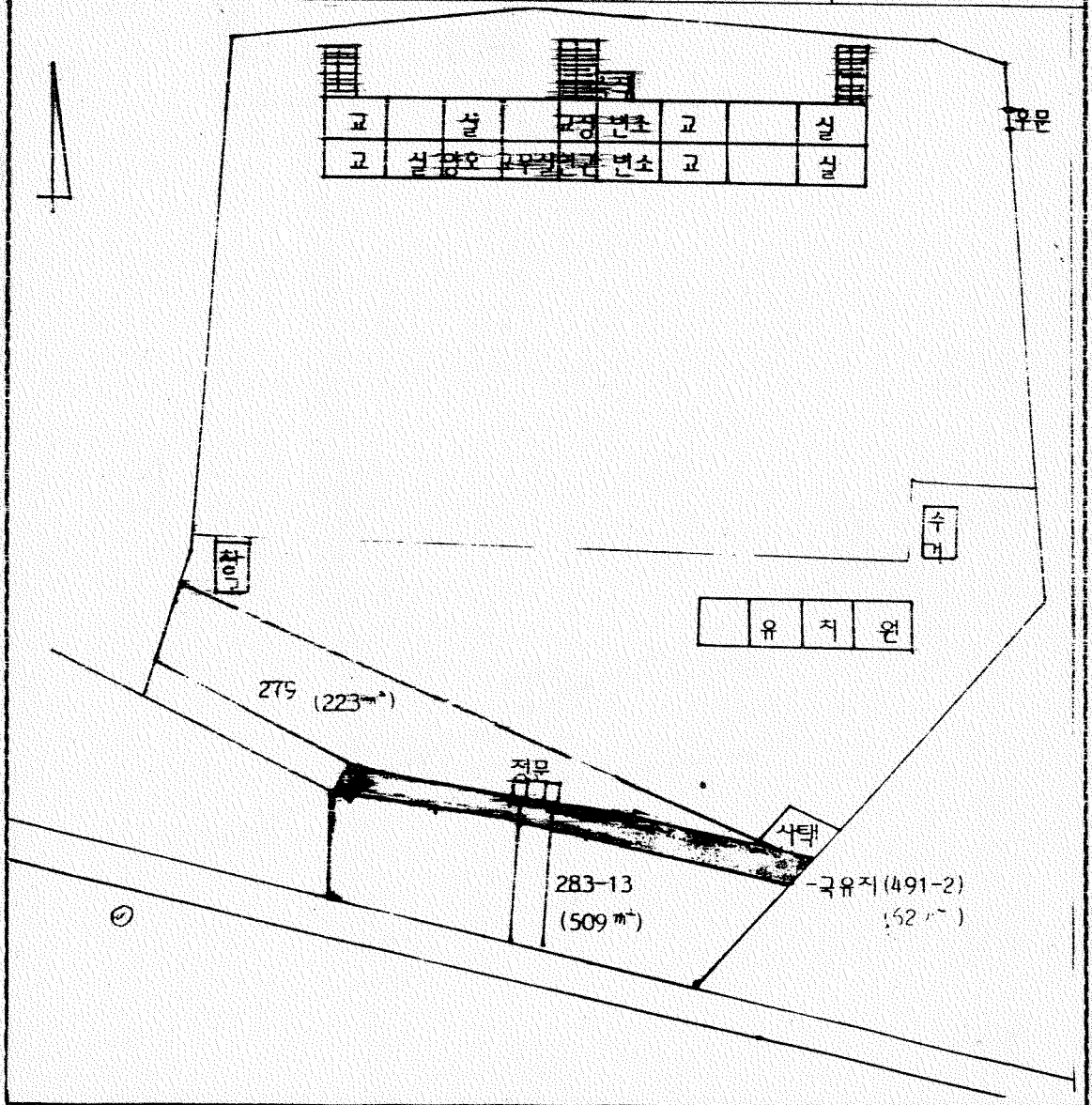
군남 국민학교 건물및공작물 취득 배치도

용도	소재지	지번	구조	면적(㎡)	취득금액(천원)	사유
계단실	육천읍 서대리	279	철,콘,슬	67.5	33,500	계단실 증축
정문	"	"	철, 콘	1식	3,500	국도편입 계속



군남 국민학교 토지및 건물 처분 위치도

용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대장금액(천원)	사유
운동장	육천읍서대리	279	학	223	1,293	육천-고당간 국도 편입 보상금 (₩33,655,000)
전	"	283-13	학	509	862	
정문	"	279	시,벽	1식	1,521	



삼성중학교 건물 취득 및 처분 배치도

용도	소재지	지번	구조	면적	대장금및 예산액	건축년도	사유
계단실	삼성면덕정리	431-1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	81.9㎡	예산액 : 33,000		노후로 계속
계단실	삼성면덕정리	431-1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	72㎡	대장가격: 5,413	70	노후로 철거

